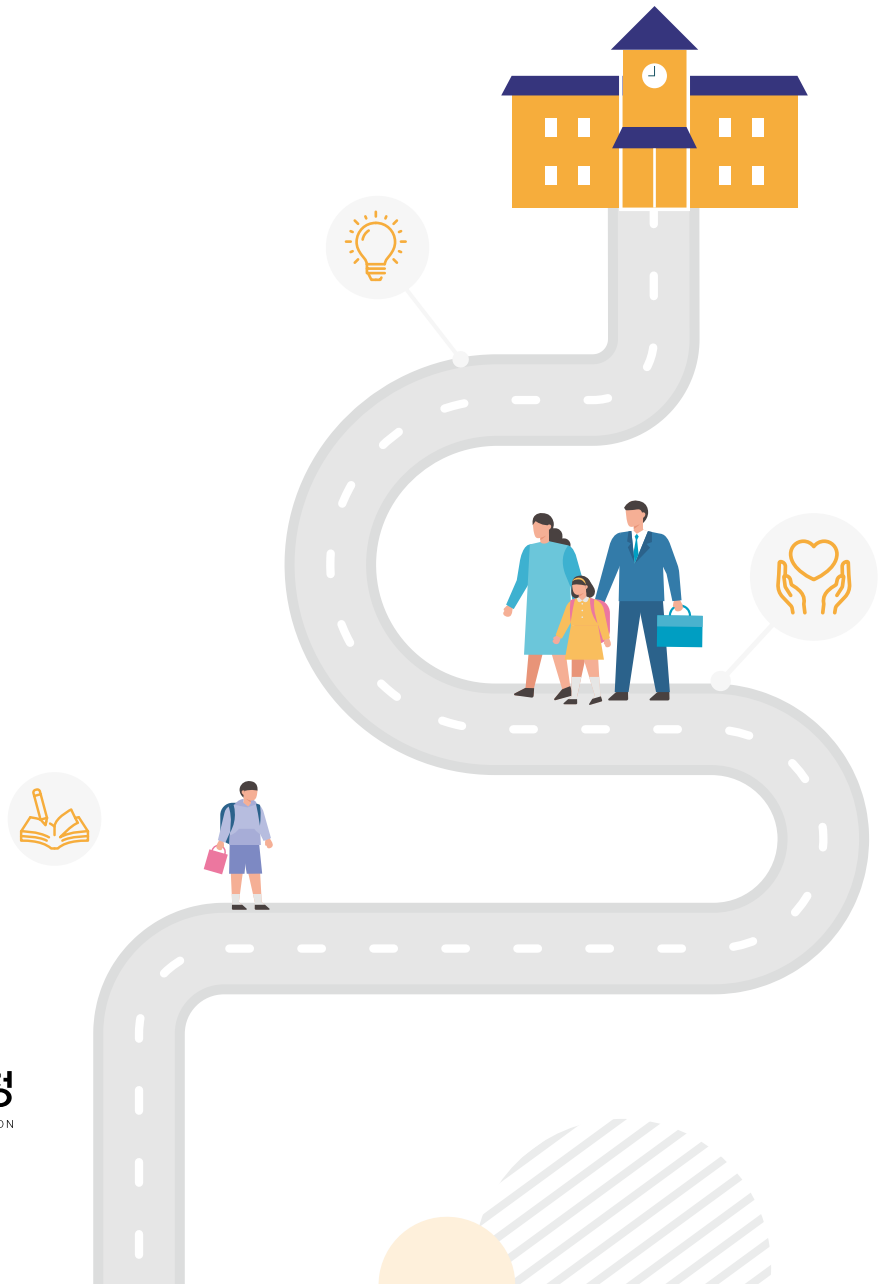


2024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부모, 학부모가 되다





교육공동체의 약속

- 학부모 교육참여는 자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참여한다.
- 학교와 선생님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참여한다.
- 학부모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 학교와 건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 학교생활에 대해 평소에도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눈다.
-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2024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인사말

1학년 학부모님께

한참 어린 줄만 알았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방을 메고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놀이 중심의 유치원과 달리 배워야 할 교육과정과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적응을 위해 아이들도 긴장하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님도 염려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2024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는 부모님의 그러한 염려를 덜어드리고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작한 자료입니다. 이 책은 1학년에 입학하여 적응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단순한 교육과정이나 설명서식 안내를 넘어서 학부모님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의 하루 학교생활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 배움, 건강 영역별로 1학년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안내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로서 초등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겪는 전반적인 교육 영역으로 학습권과 교권, 인성교육, 안전교육 부분을 Q&A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참고자료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학부모님이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교육공동체(교사, 학생, 학부모)로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한층 더 시너지 효과를 내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에 있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성장하며, 교육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확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의 교육 동반자이자 삶의 멘토로서, 더욱 효과적으로 자녀의 미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안내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2024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부모, 학부모가 되다

I. 두근두근, 1학년 첫걸음

01 1학년의 특별한 하루 08

가. 학교에 등교해요	08
나.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해요	11
다.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14
라. 친구들과 점심을 먹어요	17
마. 안전하게 하교해요	19

02 1학년으로 자라나기 22

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해요	22
• 1학년 어린이의 발달 특성 이해하기	
• 놀이하며 자라는 어린이	
• 감정 표현으로 마음을 돌보는 어린이	
•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는 어린이	
나. 배움을 시작해요	35
• 또박또박 한글 공부	
• 기초부터 튼튼하게 수학 공부	
• 평생 독자로 성장하는 독서 습관	
• 진단부터 지원까지 개인별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 읽기 어려움, 난독증	
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요	44
• 몸 튼튼 학생 건강검사	
• 마음 튼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위(Wee) 프로젝트	
• 1학년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1) - 새학기 증후군	
• 1학년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2) - 아동 우울증	
• 1학년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3) - ADHD	

03 학부모로 거듭나기 54

-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참여
- 모든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 학부모회
- 학교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
- 교실 속 자녀를 만나는 학교 수업공개
-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학교설명회
- 부모됨을 함께 배우는 학부모교육
- 자녀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학부모상담
- 학교와 소통하는 방법
-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탁 금지법

II. 차근차근, 모두를 위한 한걸음

01 함께 걷는 학습권과 교권 66

가. 학교를 만난 인권	66
나.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68
다. 건강한 학교를 위한 발돋움, 교권 보호 4법	69
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72
마. 기타 교육 관련법 Q&A	79

02 함께 지키는 평화로운 학교 80

가.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요	80
•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 학교폭력, 예방이 우선	
나.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요	87
• 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 피해 관련 개념	
•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다.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켜요	91
•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학대 신고 의무	
• 가정폭력 예방교육	
라. 편견 없는 세상을 꿈꿔요	94
• 통합교육	
• 특수교육	
마. 가족의 다양성을 이해해요	96
• 다문화교육	
•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 배치	

03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98

가. 안전하게 등학교를 해요	98
• 등하굣길 교통안전	
•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요	100
• 재난안전교육	
• 실종유괴예방교육	
다. 학교안전제도가 궁금해요	104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학교안전공제	
라.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해요	107
• 감염병	
• 미세먼지	
• 학교급식	



2024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부모, 학부모가 되다



두근두근, 1학년 첫걸음

- | | |
|----------------|----|
| 1. 1학년의 특별한 하루 | 08 |
| 2. 1학년으로 자라나기 | 22 |
| 3. 학부모로 거듭나기 | 54 |



01

두근두근, 1학년 첫걸음

1학년의 특별한 하루

가 학교에 등교해요

학교에 가는 것을 '등교'라고 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초등학교는 약 8시 40분~9시에 등교를 합니다.

등교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늦어도 수업 시작 5~10분 전에는 교실에 도착하여 하루 일과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일찍 자고 알맞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릅니다.



아이들은 교실에 도착하면 이렇게 해요

- ➔ **책가방, 겁옷 등 개인 물건을 스스로 정리합니다.**
책가방은 입구를 잘 닫아 책상 옆 고리에 걸어둡니다. 겁옷은 떨어지지 않게 의자에 잘 걸어두거나 접어서 사물함 등에 넣어둡니다.
- ➔ **시간표를 보고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교과서를 학교 서랍이나 사물함에 보관합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필요한 교과서와 필통 등을 미리 꺼내 놓거나 제출할 것이 있다면 지정된 곳에 제출합니다.
- ➔ **책 읽기 등 아침 활동을 합니다.**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독서 등 아침 활동을 합니다. 아침 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에 읽을 수 있도록 1~2권의 동화책을 가지고 다니거나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하기도 합니다.
※ 학교 도서관 이용 시, 1학년은 '도서관 이용 교육'과 대출증 준비를 위해 대체로 3월 말~4월 초부터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 **안전하고 편안한 등굣길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오고 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안전상 주의해야 할 곳을 꼭 짚어줍니다. 등굣길에는 오늘 하루 일과나 긍정적인 소재의 대화, 격려의 말을 나누며 좋은 기분으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발 및 실내화를 신고 벗기, 겁옷 입고 벗기, 우산이나 장화 정리하기 등을 충분히 익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발, 겁옷, 우산 등은 사용 방법이 복잡하지 않거나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아 아이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 ➔ **어른들이 '해주기' 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세요.**
입학 후 학급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물건(필통, 물병 등)을 꼭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가방을 살펴봐 주세요.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해감에 따라 부모님이 가방을 챙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가방을 챙길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늦으면 꼭 미리 연락해 주세요.**
아이의 등·하교 시간이 평소와 달라질 경우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정해진 방법을 통해 연락합니다. 예정된 일정이라면 최소 1일 전에, 질병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면 1교시 수업이 시작하기 전(8시 40분~9시)에 꼭 연락합니다.
결석·지각·조퇴 등 출결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서식의 출결 서류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출결 서류 서식 및 증빙서류의 종류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출결'에 대해 알아볼까요?

- ➔ '수업일수'란 학교장이 정한 '학생이 1년 중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합니다. 대개 초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입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기관이므로, 학생의 출석일수가 해당 학교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지급 학년을 수료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 ➔ 수업에 출석하지 않거나(결석), 지각, 조퇴 등 출결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각각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생활기록부에 입력합니다.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결석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 결석계+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은 결석계+증빙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제출
	② 미인정 결석 출석정지, 태만,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하거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Q&A

Q : 조부모님 댁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떤 결석일까요?

A :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 경조사 등으로 출석하지 못했거나,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승인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이란?

- ①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②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
 - ③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 관련 규정 및 신청서·보고서 서식은 각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해요

초등학교 수업 시간은 1교시에 40분입니다. 그리고 1학년은 매일 4교시~5교시 수업을 합니다. 학교마다 수업 시간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 종류에 따라 1~2교시를 묶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이렇게 공부해요

- **학교 및 수업에 적응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등교,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하교 모두 배움의 과정입니다. 학교에서의 하루, 한 학기, 일 년이 어떻게 운영되며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익힙니다. 또한 학습을 하는 기초적인 방법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혀 습관화합니다.
- **교과서, 조작, 놀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학습자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교과서뿐만 아니라 동화책 연계, 구체물 활용 및 조작, 놀이 및 신체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합니다. 이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른 학습 습관은 무엇일까요?

➔ 바른 학습 습관은 바른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구 활용, 놀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교육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학년 아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데 미숙합니다. 아이의 주변에 이목을 끌 만한 물건 또는 소리가 있거나 자세가 바르지 않다면, 이는 학습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또한 '바른 자세'는 성장기인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도 중요합니다.

➔ 바른 학습 습관은 끝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누구보다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못하거나 틀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에 익숙하지 않아 주어진 학습을 하지 않으려 하기도 합니다. '1학년은 모르고, 서툴고, 틀리는 것'이 당연하므로 못하거나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활동 과제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 과정에서 아이는 점차 성장해 나갑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학교에서의 학습을 위한 기본 자세와 습관을 길러주세요.

자신의 책상과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시간을 점차 늘려갑니다. 또한 책상 위에 책과 필통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필통은 책의 왼쪽에, 글씨를 쓰는 곳은 연필이 닿는 오른쪽에 오게 합니다. 학습 전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은 아이의 집중이 분산되지 않도록 합니다. 집에 있는 동화책 등을 활용하여 놀이처럼 '몇 쪽'을 펴 보는 연습을 합니다. 숫자가 크면 '36쪽, 3, 6'과 같이 '몇십 몇 쪽, 몇, 몇'처럼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생각을 큰 소리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소통 능력을 길러주세요.

매일 꾸준히 동화책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글자를 읽을 줄 알면 학습활동 수행뿐만 아니라 자신감 향상,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생각 나누기, 놀이나 보드게임 등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 있게 말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과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 초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교과서	1학기	2학기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1-1(가) → 국어 1-1(나) • 국어활동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1-2(가) → 국어 1-2(나) • 국어활동 1-2
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1-1 • 수학익힘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1-2 • 수학익힘 1-2
통합교과	바른생활·슬기로운생활·즐거운생활을 주제에 따라 통합 학교 → 우리나라 → 사람들 → 탐험 하루 → 약속 → 상상 → 이야기	

2024학년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새로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교과서 구성 및 흐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 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시간입니다. ‘입학식, 방학식’ 등의 행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등의 인성교육, ‘교통안전교육, 화재대비훈련’ 등의 안전교육, ‘현충일, 한글날’ 등의 계기교육, ‘독서교육, 디지털교육, 음악·미술·체육활동’ 등의 학교 및 학급 특색활동, 진로활동 등이 진행됩니다.

Q&A

Q : 교과서를 잃어버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교과서를 분실했을 경우 개별적으로 구매합니다.

초등학교에는 해당 학교 학생 수에 맞게 교과서가 보급되므로 추가로 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분실한 경우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모두 ‘국정교과서’입니다. 국정교과서는 교과서를 출판한 출판사의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초등학교의 쉬는 시간은 약 10분이지만 쉬는 시간의 운영 방법은 학교와 교사마다 다양합니다.



1학년 아이들은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 쉬는 시간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기릅니다.
 - 쉬는 시간에는 이전 수업에 사용한 교과서 등을 정리하고 다음 수업에 필요한 것을 준비합니다.
 -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을 합니다.

1학년 아이들은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 쉬는 시간에 이런 활동이나 놀이를 합니다.

1학년 아이들은 독서,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종이접기, 보드게임, 친구와의 대화나 놀이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단, 학급마다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의 종류나 범위가 다르므로 학기 초 담임선생님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 쉬는 시간에 이런 행동은 안 됩니다.

교실 및 복도에서 뛰어 다니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밀기, 던지기 등), 교실 밖으로 나가서 노는 행동 등 위험한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노는 것은 대부분의 교실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난감 칼, 인형 등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물건은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 ① 학교생활 및 수업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 ②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와의 갈등 상황이 생기거나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자랑하거나 부러워하는 등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 ④ 고장이 나거나 분실될 수 있습니다.

Q&A

Q : 아이가 쉬는 시간에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A : 꼭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전 시간에 사용한 것 스스로 정리하기, 다음 수업 미리 준비하기, 화장실 다녀오기’ 등 쉬는 시간에 꼭 해야 하는 일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아이의 필통 등 잘 보이는 곳에 ‘스스로 해보기’ 표를 붙여 실천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종이접기’ 등 혼자 할 수 있는 활동 도구 등을 챙겨주시거나 ‘하루 1명 친구 관찰하기’ 등 아이와 부모만의 미션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Q : 아이가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만 갈 수 있을까요?

A :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것이 좋지만, 급하다면 수업 시간에도 갈 수 있습니다.

학급마다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수업 시간에도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다. 단,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올 동안 많은 아이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한 명을 기다려 줄 수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 놀다가 화장실을 가지 않고 수업 시간에 가거나 공부가 하기 싫어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다녀오고 정말 급한 경우만 수업 시간에 가도록’ 가정에서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급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의 화장실 처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용변을 볼 때 스스로 벗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착용하고, 대·소변 후 뒤처리 방법을 입학 전에 충분히 알려줍니다.

**Q : 아이가 '난 친구가 없어, 놀 사람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외톨이일까요?**

A : 아이의 말이 지속되는지, 하교할 때 표정은 어떤지 등을 살펴주세요.

사람마다 관계를 맺는 과정과 속도는 다릅니다. 먼저 다가가는 아이도 있고, 친구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아이도 있습니다. 특히 입학 후 3월은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하고 관계를 맺을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 주세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친구에 대해 알게 되고 어울리면서 친구 관계를 형성합니다.

1학년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하여 혼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명이 어울려 놀기도 합니다. 또 1학년 아이들은 '단짝 친구'보다는 '그날의 기분과 하고 싶은 놀이'에 따라 노는 아이들이 수시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 친구와 어울려 놀았음에도 자신이 놀고 싶은 친구랑 놀지 못하면 '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난 친구가 없어'라는 말이 일회성인지, 지속되는지를 살핍니다. 기분이 표정에 잘 드러나는 나이이므로 아이의 표정을 살피는 것도 마음을 알아보기 좋습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 들어선 아이들은 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여러 갈등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부딪히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 이겨내다 보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부모는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네 곁에는 우리가 늘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상황이 계속된다면 담임선생님과 연계하여 적절한 지도와 도움을 줍니다.

라 친구들과 점심을 먹어요

초등학교에서는 3~4교시 수업 후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은 교실에서 먹기도 하고 급식실로 이동하여 먹기도 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차례차례 점심을 받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먹기 싫은 음식도 한 번은 먹어봅니다.
 점심을 다 먹으면 남은 음식을 정리하여 정해진 곳에
 식판을 가져다 놓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점심 먹는 모습을 살펴볼까요?

- ➔ 교실 또는 급식실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점심을 먹습니다.
 - 손을 깨끗이 씻고 차례대로 점심을 받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식판을 들고 음식을 받은 후 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정해진 방법에 따라 남은 음식과 식판을 정리합니다.
 - 초등학교 급식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물병은 개인이 준비합니다. 대부분 학교에 정수기와 음수대가 있으므로 물을 다 마시거나 물병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를 이용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손가락과 젓가락을 바르게 사용하고 골고루 먹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초등학교는 교사가 급식 배식부터 정리까지 지도하고 교사 1명 당 학생 수가 많으므로 점심 시간에 아이들을 먹여주거나 기호에 맞게 음식을 잘라주는 것 등이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식사 시간에 손가락과 젓가락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입학 전에 사용법을 충분히 익힙니다. 손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하여 크기가 큰 음식을 자르거나 면류 등을 먹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손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기 불편하다면 개인 수저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편식이 심하여 먹지 않고 버티거나 너무 천천히 먹는 경우 다른 아이들을 기다리게 만들기 때문에 가정에서 싫어하는 음식도 한 번은 먹어보기, 먹는 속도 조절하기 등을 길러줍니다.

➔ 급식실에서 급식을 한다면 물병을 담을 물병 가방을 준비해 주세요.

1학년 아이들이 식판과 물통을 함께 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급식실에서 급식을 한다면 물병을 물병 가방에 넣거나 끈을 연결하여 물병을 손목이나 어깨에 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아이들이 물병을 자주 떨어뜨리므로 플라스틱보다 단단한 재질이 좋고, 아이가 쉽게 열고 단단히 닫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대로 닫지 않아 물이 새더라도 다른 물건들이 젖지 않도록 물병은 항상 가방 바깥에 있는 주머니에 보관합니다.

Q&A

**Q : 아이가 못 먹는 것이 있어서 학교에서 밥 먹는 것을 걱정합니다.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A : 초등학교에서는 골고루 먹도록 영양교육을 하고 있지만 강제로 먹이지는 않습니다.

알레르기 음식이나 심각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음식이 있다면 입학 후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알리고, 가정에서도 식단표를 꼭 확인합니다. 그 외에도 아이가 개인의 기호로 먹지 않거나 편식하는 경우 먹어보도록 권할 순 있지만 강제로 먹이지는 않습니다. 꼭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을 위해 한 번은 먹어보자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 안전하게 하교해요

초등학교 1학년은 4~5교시 수업을 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4교시 수업을 하는 날은 약 12시 20분~13시, 5교시 수업을 하는 날은 약 13시 30분~13시 50분에 하교를 합니다.



하교를 하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서 약속된 사람과 만납니다.
만약 만나지 못했거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면 교실로 돌아갑니다.
좌우를 살피면서 천천히 걷고, 친구와 놀거나
다른 곳에 갈 땐 부모님께 꼭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하교 시간과 방법을 알아보까요?

➔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표 (예시, 학교마다 다름)

	월	화	수	목	금
1~4교시 (쉬는 시간 포함)	9시~12시 10분	9시~12시 10분	9시~12시 10분	9시~12시 10분	9시~12시 10분
점심 시간	12시 10분~12시 50분	12시 10분~12시 50분	12시 10분~ 점심 식사 후 하교	12시 10분~12시 50분	12시 10분~ 점심 식사 후 하교
5교시	12시 50분~13시 30분	12시 50분~13시 30분		12시 50분~13시 30분	

초등학교 1학년의 하교 시간과 방법을 알아볼까요?

➔ 초등학교 1학년은 보통 일주일에 5교시 수업 3번, 4교시 수업 2번을 합니다.

- 4교시 수업을 하는 날은, 수업 후 점심을 먹고 하교합니다. 점심을 먹는 속도에 따라 아이의 하교 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약 12시 20분~13시에 하교합니다.
- 5교시 수업을 하는 날은, 5교시 수업을 마치면 하교하므로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약 13시 30분~13시 50분에 하교합니다.
- 학교마다 수업 시간 운영 방법이 다르고, 1학년은 입학 후 적응 기간 운영 방법에 따라 수업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새 학기에 우리 학교 '수업 시간표'를 확인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아이들은 부모님(보호자) 또는 학원 맞이, 혼자 이동, 방과후학교 참여, 돌봄교실 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교합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들에게 '학교'는 크고 낯선 곳입니다. 매일 정해진 곳으로 하교를 잘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헛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3~4월에는 등교할 때 '오늘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오늘 어디에서 무슨 수업을 듣는지' 여러 번 말씀하시고, 아이가 제대로 인지했는지 반복하여 확인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하교 시간에 부모님이 아이를 맞이하러 가신다면 예정된 하교 시간보다 약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여 기다립니다. 만약 아이를 데리러 오기로 한 사람과 길이 어긋나거나 아이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를 땐 무조건 교실로 돌아가도록 평소에 수시로 알려드립니다.

Q : 부모가 모두 출근을 하여 아이를 방과후수업에 데려다 줄 수 없을 땐 어떻게 할까요?

Q&A

A : 입학 후 일정 기간 동안 담임교사 등이 아이들을 인솔합니다.

입학 후 일정 기간 동안 방과후수업이나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담임교사나 방과후수업 강사, 돌봄전담사가 인솔하여 해당 교실까지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별적으로 이동합니다. 대략 2~3주 정도면 아이들 스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혼자 가지 못한다면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무엇일까요?

➔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입니다.

컴퓨터, 과학, 영어, 논술, 미술, 악기, 댄스, 바둑 등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 및 참여합니다.

➔ 돌봄교실이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저학년 중심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맞춤형 돌봄’입니다.

	방과후학교	오후(저녁)돌봄교실	
대상	1~6학년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1~2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가정 자녀 등 (한 교실 당 20~22명 편성)	
운영 시간	정규수업 종료 후 시작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오후돌봄	정규수업 종료 후~19:00
		저녁돌봄	19:00 이후
운영 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	개인 및 단체활동	
기타	학교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시간 및 방법이 다르므로 각 학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Q&A

Q : 1학년 학생입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모두 참여할 수 있을까요?

A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돌봄교실 입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가능합니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아이들은 얼마든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돌봄교실로 이동하여 머무르다가 개인이 신청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시간에 맞게 해당 교실로 이동하여 참여합니다. 방과후수업이 끝나면 다시 돌봄교실로 이동하여 머무르거나 하교를 하기도 합니다.

02

두근두근, 1학년 첫걸음

1학년으로 자라나기

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해요

1학년 어린이의 발달 특성 이해하기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입학기 자녀를 둔 부모의 공통된 걱정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맞이할 환경적 변화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학년 어린이의 발달 특성

➔ 신체 감각의 통합적 발달

- 대부분 앞니갈이를 시작하였으나 아직 이갈이가 시작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 신체 성장이 빨라져 몸 움직임이 활발하나 균형 감각과 조절력이 약하여 잘 넘어지고 자기방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 소근육 발달이 현저해지며 손과 발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꼼지락거림이 많습니다.
- 손과 발의 협응력이 발달하나 리듬감이 아직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 방향 감각과 공간 감각이 원활하지 않아 순간 방향 전환이 쉽지 않으며 길을 잘 잃습니다.

➔ 인지적 특성

- 상황을 언어로 표현 가능하나 전체적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일상에서 수 개념이 형성되고 추상적인 숫자를 이해하나 활용이 어렵습니다.
- 시간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먼 과거와 가까운 과거의 기억에 혼동이 있습니다.
- 직관적으로 주변을 관찰하며 사실과 상상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아 물활론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 사고하여 행동하기보다 모방을 통하여 배움이 가능합니다.

➔ 정서적·사회적 특성

-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불안을 느끼고 신체적으로까지 반응합니다.
- 정서의 경과 시간이 짧고 강렬하며 자주 변합니다.
- 자기중심적이고 싸움이 잦습니다.
- 남녀 구분 없이 서로 잘 어울립니다.
- 함께 있으나 각자 놀이를 합니다.
-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 의해 판단이 좌우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Q&A

Q : 또래보다 작고 발달이 늦된 우리 아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A : 단순히 체격이 작다는 이유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발달의 차이가 큼니다. 아동기는 영아기나 유아기에 비해 신체의 성장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키나 몸무게의 차이가 커 보이지만 2~3년이 지난 중학년 이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점차 줄어듭니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 알고 있는 것인데도 자꾸 물어보는 우리 아이, 왜 그럴까요?

A : 아는 것도 자꾸만 물어보는 것은 1학년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은 것과 알지만 불안한 것입니다.

입학을 앞둔 아이에게는 부모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 알고 있잖아’가 아니라 ‘이건 이런 거야. 잘 알겠지?’ 하고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 ‘이제 우리 ○○이가 ○○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잘 기억할 거야’라고 해주면 아이는 똑같은 질문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신체 활동과 더불어 소근육 활동을 해주세요.**

성장기 아이들은 충분한 신체 활동이 필요합니다. 달리기, 줄넘기, 던지기 등의 대근육을 사용하는 신체 활동과 종이접기, 손뼉치기 놀이, 조립하기 등의 소근육 활동을 골고루 해서 균형 있는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이는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등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해 주세요.

1학년 어린이들은 ‘나 잘했죠?’, ‘나는 이것 못해요’처럼 말의 앞에 ‘나’라는 말을 붙여 말하는데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배움 또는 행동이 늦거나 부족하더라도 비교하지 말고, 노력과 작은 성취 등을 칭찬해 주세요.

① 놀이하며 자라는 어린이

놀 궁리만 하는 아이, 놀기 좋아하는 아이, 잘 노는 아이.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의 놀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놀 권리가 있고, 놀이를 통해 성장합니다. 건강한 성장과 균형 발달을 돕는 놀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어린이들이 진정한 놀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놀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동의하는 문항에 체크(✓)하세요.

- 놀이가 즐거운 것은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 한 가지 놀이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스스로 배우는 과정이다.
- 놀이하는 방법을 어른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된다.
- 놀이하면서 수학이나 과학적 개념을 더 잘 배울 수 있다.
- 놀이하면서 실패하더라도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 1개 이하

놀이와 배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주세요.

✓ 2~3개

놀이와 배움의 의미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 4~5개 이하

놀이와 배움의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아야 하는 이유

놀이는 **즐거움**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물입, 탐험, 주도성

놀이는 **신체 발달**을 돕습니다.



대근육, 소근육, 운동능력

놀이는 **언어 발달**을 돕습니다.



어휘, 의사소통 기술, 읽기, 쓰기

놀이는 **사회성 발달**을 돕습니다.



사회적 규칙, 배려, 타협, 자제, 협력

놀이는 **창의성**을 키워줍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창의성

놀이는 **정서 발달**을 돕습니다.



다양한 감정 표현, 공감 능력

Q&A

Q : 혼자 노는 시간이 많은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A : 아이가 혼자 노는 이유를 먼저 살펴봐 주세요.

혼자 노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기질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아이인 경우, 발달 수준이나 놀이 수준의 차이로 또래와의 놀이가 어려운 경우,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의 미숙으로 또래로부터 거부 또는 소외당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대처 방법으로는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보도록 해주기, 함께 노는 것을 방해하는 물건(떠칠, 책 등)을 치워 주기,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놀며 어울리는 연습하기, 다른 사람들과 놀 때마다 긍정적인 강화하기 등이 있습니다.

Q : 아이와 놀 때마다 싸우게 되는 아빠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A :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경쟁적인 것보다는 협동을 통한 놀이가 적합합니다.

만 8세 전까지는 지는 것을 내면에서 수용하기 힘들고 경쟁이 지나치게 과도해질 수 있으니, 타인과의 경쟁보다는 스스로와의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와의 놀이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를 이기는데 몰두한 나머지 공정하지 않은 경쟁 상황에 아이를 밀어 넣었을 수도 있으며, ‘어디 아빠 수준까지 한번 와 봐라’ 하는 식으로 대하면 아이는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놀이를 하는 동안 학습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강제성을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자율성을 줘야 합니다.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 자체를 사심 없이 즐기는 것이 진짜 놀이입니다. 단, 안전하지 않은 경우처럼 필요한 순간에는 약속을 지키도록 알려야 합니다.

➔ ‘놀아주기’가 아닌 ‘함께 놀기’를 해주세요.

부모가 자녀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놀아주는 것은 강요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기에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불만족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놀이는 ‘양’보다 ‘질’이 우선되어야 하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정해 꾸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이하는 순간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하여 진심으로 같이 놀이해 주세요.



성장을 돕는 놀이의 특징

➔ 저구조성 재료로 하는 놀이

저구조성 재료란 가지고 노는 사람에 따라 재료의 변형이나 놀이 방법이 달라지는 재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뭇가지, 모래, 흙, 물, 형겅 등이 저구조성 재료입니다. 이런 재료로 놀면 아이는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틀이 없는 놀이

놀이의 규칙이나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아이가 자유롭게 놀이를 만들어가는 놀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역할놀이, 상상놀이, 가상놀이 등이 틀이 없는 놀이입니다. 이런 놀이를 하면 아이는 불확실성의 요소들에 대해 호기심과 의욕을 갖고,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즐기는 놀이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놀이를 즐기고 놀이에 대한 칭찬과 격려, 의견과 감정을 공유하는 놀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놀이, 친구놀이, 동료놀이 등이 함께 즐기는 놀이입니다. 이런 놀이를 하면 아이는 놀이의 재미와 가치를 인식하게 되며, 놀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몸을 쓰는 놀이

신체적인 움직임이나 능력을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놀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놀이, 운동놀이, 리듬놀이 등이 몸을 쓰는 놀이입니다. 이런 놀이를 하면 아이는 자신의 몸을 조절할 수 있고, 놀이의 반응을 통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① 감정 표현으로 마음을 돌보는 어린이

세상에 나쁜 감정은 없다고 합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감정도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삶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알람의 역할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관리, 표현하는 데 능숙해지면 살아가며 만나는 문제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방법으로 감정 표현하기

➔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화가 났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약속을 어겼을 때 화가 났어. 나는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느꼈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황과 분위기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협조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회의가 끝난 후에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대화하거나, 다른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인정하기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거나 비난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에는 잘못된 것이 없으며, 감정은 옳고 그름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화나지 않아도 되며, 단순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정상적인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며 넘어가도록 합니다.

➔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고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염려도 없고 상대와 연결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너는 나에게 어떤 기분이 들게 해?'와 같은 말은 자칫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며, 죄책감을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공감 능력 키우기

➔ 다른 사람의 말 경청하기

경청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눈을 마주치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줍니다. 맞장구를 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 보기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도 쉬워집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다 보면, 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내 감정을 조절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공감 능력 키우기

→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꼭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모두 동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이해나 공감이 힘들다면 그냥 그 사람에게 그런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기

친한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나와 너무 비슷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트 직원에게, 이웃 주민들에게, 공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 볼까요? 과장되게 인사할 필요는 없고 ‘안녕하세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점 찾기

공통점을 찾으면 공감하기도, 공감 능력을 보여주기도 더 쉬워집니다. 새로운 사람과 대화할 때는 공통점을 몇 가지 찾아보면 대화를 이어가기 편해집니다.

Q&A

Q : 무슨 일이 있으면 울음부터 터트리는 아이, 어떻게 도와줄까요?

A : 평정심을 갖고 아이의 감정을 해석해 주세요.

‘너 왜 울어?’, ‘뭘 잘했다고 울어?’, ‘그만해! 울면 다 되는 줄 알아?’와 같은 말로 다그치는 것 말고, 아이의 감정을 해석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 황당함, 비참함, 아픔, 짜증 등 울음의 스펙트럼은 넓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알지 못하니, 옆에서 부모가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이가 직접 하도록 하고, 이러한 연습이 충분해야만 친구 관계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Q :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아이, 왜 그럴까요?

A : 때때로 아이들은 미안함을 느끼지 못해서, 자신으로 인한 상대방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아픔에는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은 돌아보지 못합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부모는 그 사실을 볼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루는 상황은 복잡적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가해자와 완전한 피해자로 나누는 게 어렵고, 거의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집중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상처받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건 아닌지를 돌아보는 게 시비를 가리는 일보다 우선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느꼈다면 누구나 사과할 수 있고 사과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대화의 목적을 기억하세요.

예상치 못한 자녀의 반응에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갈등이 초래될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꾸중하기 위한 것인지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목적을 기억하고 있다면 언어 선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판단하지 말고 자녀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세요.

‘넌 늘 네 생각만 하지’, ‘너 공부하기 싫어서 이렇게 했잖아’라고 부모의 생각으로 먼저 판단하고 결론짓지 말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하고 자녀의 생각을 먼저 물어봐 주세요.

➔ 내(부모) 말은 ‘정답’, 네(자녀) 말은 ‘문제’라는 생각은 그만!

대화는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공감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 부모의 생각과는 별개로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 그랬구나’, ‘저런, 엄마는 몰랐네’,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이런 말들은 자녀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합니다. 자녀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 주세요.

➔ 의사 전달을 짧고 간결하게!

지나간 잘못까지 몰아서 긴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만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는 어린이

현대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고민, 바로 미디어 사용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마트 기기를 만나고 인터넷을 사용하며 미디어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미디어를 스스로 잘 사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식사 예절을 배워나가는 것처럼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도 부모님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미디어 과의존, 점검해 볼까요?

➔ 자녀용

- 미디어 기기를 스스로 조작할 수 있다.
- 식사 시간에도 미디어 기기를 사용한다.
- 미디어 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 이상이다.
- 미디어 기기를 하느라 다른 놀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 미디어 기기를 자주 사용하면서 시력이나 자세에 문제가 생겼다.
- 부모님이 읽어 주는 책보다 영상에 더 관심을 보인다.
- 하루동안 모든 미디어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면 짜증내고 불평할 것이다.
- 집에서 가족들과 놀이하는 시간보다 미디어 기기 사용하는 시간이 많다.
-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도 꼭 미디어 기기가 필요하다.



➔ 부모님용

- 미디어 기기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수시로 꺼내 본다.
- 화장실에 갈 때는 꼭 미디어 기기를 가져간다.
- 다른 일을 하다가도 알림 소리가 들리면 미디어 기기가 있는 곳으로 간다.
- 자기 직전까지 미디어 기기를 사용한다.
- 눈 뜨자마자 미디어 기기를 확인한다.
- 외우는 전화번호가 3개 이하이다.
- TV를 보면서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을 한다.
- 다운로드 받은 앱이 30개 이상이다.
-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미디어 기기를 하는 시간이 많다.



1~2개

미디어 사용이
양호한 편입니다.

3~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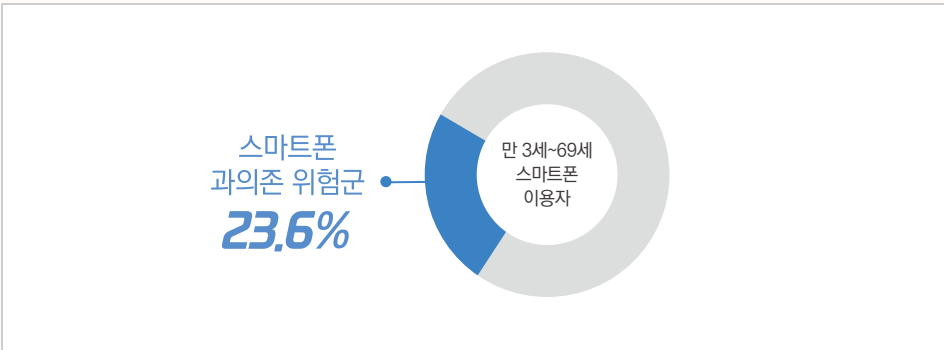
미디어 과의존이
의심됩니다.

6개 이상

미디어 과의존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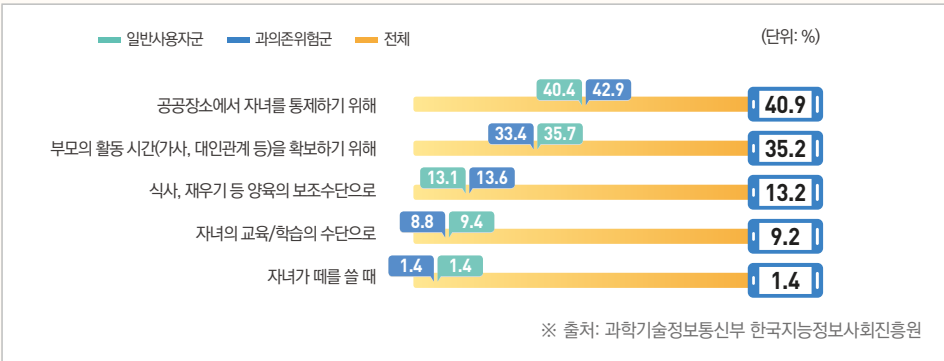
통계로 본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 2022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6%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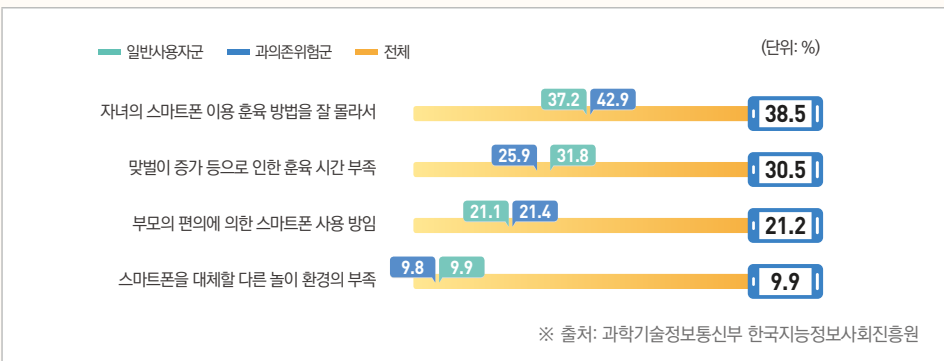
➔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상황

과의존 위험군은 일반사용군에 비해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이 스마트폰을 보여줌



➔ 유아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주요 원인은?

과의존 위험군은 일반사용군에 비해 훈육 방법을 몰라서, 일반사용군은 훈육 시간 부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함



미디어 사용, 잘 시작하기

➔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 미디어 사용 규칙은 언제, 얼마나,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규칙은 아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 좋습니다.
- 아이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닌 온 가족이 함께 지키는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종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이와 대화하며 '잘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규칙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p>1 밝은 곳에서 인터넷 사용하기</p>	 <p>2 잠자리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기</p>
 <p>3 NO 인터넷 시간: 모든 스마트 기기를 모으고 인터넷 사용을 멈추는 시간</p>	 <p>4 소통하는 시간: 식사 시간에는 인터넷 하지 않기</p>

※ 출처: i-누리 홈페이지

➔ 필요에 의해서 주고, 걱정에 의해서 뺏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규칙이 있음에도 부모의 필요에 의해 규칙을 깨버리고 미디어 사용을 마구 허용하면 아이 또한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 또한 규칙이 깨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다가 부모의 걱정과 불안에 의해 갑자기 혼을 내며 중단시키는 것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 미디어 사용을 시작할 때 규칙을 떠올리는 '질문'을 사용하세요.

- '우리 몇 개를 보는 거지?', '시계가 숫자 넷으로 가면 끝나는 거지?'라고 질문함으로써 규칙을 다시 상기 시킵니다.
- '어떤 영상을 볼 거야?', '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어떤 놀이를 할 거야?'와 같은 질문을 통해 영상 시청과 이후 계획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용, 잘 끝내기

➔ 잘 끝내는 연습을 부모와 함께 해야 합니다.

- 아이가 미디어 사용을 잘 끝내는 것에도 충분한 연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 따라서 처음엔 부모가 다소 힘들더라도 아이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 옆에 앉아 규칙을 지켜야 하는 시점까지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도움을 통해 '규칙을 잘 지킨 경험'이 아이에게 쌓이고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아이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 아이가 스스로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 미디어 사용 중, 아이가 규칙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몇 개 남았지?', '타이머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와 같은 질문을 한두 번 해보면 좋습니다.
- 그리고 규칙만큼 사용했을 때 부모가 바로 중단시키키 보다는 아이에게 'OO이가 스스로 꺼보자'라고 먼저 권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스스로 종료한다면 충분한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 미디어 기기에 대한 권한은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아무리 규칙이 명확하다고 해도 스마트폰, 태블릿, TV와 같은 기기를 아이가 언제든 만지고 켤 수 있다면 규칙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 기기의 버튼을 눌러 켜고 사용을 시작하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아이가 부모의 동의와 허락 없이 휴대폰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한을 해야 합니다.
- 심지어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미디어 기기가 있다 해도 그 기기의 사용은 반드시 규칙과 부모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잘 끝내기 위해서는 대안활동이 필요합니다.

- '영상 그만 보고 이제 씻자! 숙제하자! 책 읽어!'라고 한다면, 미디어를 끝내는 것에 대한 아쉬움뿐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에 대한 거부감이 더해지기에 멈추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 따라서 미디어 사용을 제외하고 아이가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이 미디어 사용을 멈추는 것과 짝궁이 되어 대안활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혼자하는 놀이/아빠(엄마)와 함께하는 놀이 등으로 구분하여 그림, 글씨 등으로 적어 붙여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 다 보고 나서 저기 붙여 놓은 놀이 중에 어떤 것을 할까?'라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미디어 사용을 끝내고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활동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	 야외에서 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그리기/만들기 ✓ 식물에게 물주기 ✓ 동요 듣기 ✓ 그림책 보기 ✓ 블록놀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놀이 ✓ 보드게임 ✓ 아이에게 영상이나 캐릭터에 대해 질문하고 이야기 들어주기 ✓ 유튜브에 나온 활동 따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 가기 ✓ 공놀이 ✓ 산책하기 ✓ 자연물 관찰하고 그리기

※ 출처: i-누리 홈페이지

Q :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문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A : 스마트쉼센터의 상담이나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쉼센터는 전화 상담, 내방 상담, 가정방문 상담, 온라인 상담,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 및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 전국 대표번호 1599-0075(평일 09:00~22:00, 토요일 09:00~18:00)
- 홈페이지 www.iapc.or.kr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미디어를 잘 사용하는 방법의 비밀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와 상호작용이 잘 될수록 아이는 자신이 지켜야 하는 부분에서 부모에게 협력합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기대하는 만큼 정서적인 충족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아이는 미디어가 주는 만족에 더욱 쉽게, 깊이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와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며 관계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배움을 시작해요

1. 또박또박 한글 공부

한글 책임교육

한글은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한글 이해도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없도록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중교육을 실시합니다. 2024년부터는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1~2학년 시기에 국어 교과를 기존보다 34시간을 더 많이 배우게 되며 3월부터 한글 문해교육을 실시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한글 교육은 이렇게 해요

- ① 입학 초기에는 말하기·듣기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 ② 신체 활동, 놀이, 만들기 등의 조작 활동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 ③ 자음과 모음의 소리, 연필 잡는 방법과 같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웁니다.
- ④ 1학기에는 알림장이나 받아쓰기와 같은 쓰기 중심 활동은 지양합니다.

읽기 유창성

➔ 읽기 유창성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다음 단계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유창성입니다. 읽기 유창성은 글을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적절한 의미 단위로 띄어 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읽기 유창성은 모든 교과 학습의 밑바탕이자 한글 읽기 교육의 최종 목표입니다.

➔ 읽기 유창성이 강조되는 이유

글을 유창하게 읽지 못하는 학생은 단어를 해독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버립니다. 하지만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학생은 글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외국어로 된 책을 읽는 것이 한국어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읽기 유창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읽기 유창성 지도 방법

읽기 유창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적절한 난이도의 글을 함께 소리 내어 반복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교사 또는 부모님이 들려주는 시범을 듣고 반복해서 따라 읽다 보면 학생 혼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Q : 한글을 모르고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될까요?

A : 꼭 한글을 배워서 입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는 한글 집중교육 기간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놀이하듯이 한글을 익히게 되기 때문에 꼭 한글을 배워서 입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글은 친구들과 소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므로, 한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진다면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Q : 아직 한글을 잘 모르는데 영어 학원을 보내도 될까요?

A : 아이가 영어 학습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글 해득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국어 학습은 든든한 영어 실력의 밑바탕이 됩니다. 아이가 한글을 유창하게 읽는 것이 어렵다면 국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Q : 글씨 쓰기를 싫어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 아이가 흥미를 갖는 주제나 놀이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글씨 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라면 무조건 따라 쓰기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부터 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입학할 학교, 가족이나 친구 이름을 활용하면 흥미를 갖게 됩니다.

Q : 읽기 연습을 할 때 어떤 글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A : 아이에게 어렵지 않은 짧고 쉬운 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거나 긴 글은 읽기 연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과 함께 글을 읽는 시간이 즐겁고 놀이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아이가 관심을 갖는 제재의 글을 활용해 보세요. 이때 아이가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이 담겨 있는 어려운 글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의 읽기 수준보다 약간 낮은 쉬운 글을 선택하여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이 필요해요**

- ➔ 1학년 1학기에 한글 집중교육을 받은 후에도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을 힘들어 한다면 담임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한글 미해득 학생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일상생활 속 한글을 찾아보세요.

과자 봉지, 간판, 전단지 등 아이의 주변에 있는 글자들을 활용해서 한글과 친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물건에 이름을 써서 붙여주기, 만화 캐릭터의 이름 읽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한글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 손 힘을 기르는 조작 활동이 필요해요.

글씨 쓰기를 할 때 손에 너무 힘을 많이 주어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필 잡는 것을 어려워할 때는 먼저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로 선 굵기를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칠하기, 종이접기, 가위질하기 등의 손을 활용한 조작 활동도 소근육이 발달에 도움을 주어 좋습니다.

➔ 그림책을 많이 읽어 주세요.

그림책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즐겁게 한글을 익힐 수 있는 좋은 매체입니다. 보호자의 목소리로 듣는 이야기 속에서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도 깊어지고, 책 읽는 즐거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책을 소리내어 읽어 주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물론 고학년(5~6학년)에게도 효과적이며 아이들의 읽기 유창성 발달을 넘어서서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문해력 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 그림을 그리듯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 주세요.

글씨를 쓰기 전에 가로 선, 세로 선, 굵은 선과 같이 선 그리기부터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어진 선을 따라 그리기부터 시작하여 두 점을 선으로 잇는 활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글씨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올바른 자형으로 쓸 수 있도록 글씨 연습은 칸 공책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동일한 책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게 해주세요.

아이가 유창하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기 유창성을 높이려면 동일한 글을 4~5회 반복해서 읽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모님의 시범을 듣고 따라 읽기, 한 문장씩 번갈아 읽기, 혼자 읽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소리내어 읽어 보기 바랍니다.

① 기초부터 튼튼하게 수학 공부

수 감각

저학년 시기에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 중에는 수 감각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 감각은 수의 의미, 수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꾸준히 발달하는 역량입니다. 수 감각이 부족한 학생은 수에 대한 직관적인 파악이 부족하여 옳은 답에도 자신감이나 확신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수학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특징

- ① 세지 않고 보기만 해서 작은 양조차도 직관적인 파악이 어려움
- ② 구한 값이 정확한지 어렵히는 능력이 부족함
- ③ 거꾸로 세는 것을 어려워함
- ④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속도가 느림

1학년의 수학 공부

- ➔ 수 감각을 길러주기 위하여 구체물을 활용하여 직접 조작하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에서 9까지의 수를 차근차근 세기도 하고, 거꾸로 세기도 하면서 수의 위치와 크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또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이야기 요소와 놀이 요소 등을 가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학 공부를 합니다. 학습한 내용은 생활과 연계하여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적으로 학생이 수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놀이를 통해 즐겁게 공부해 보세요.

덧셈, 뺄셈 등 단순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보드게임이나 '구구단을 외우자'와 같은 간단한 놀이를 통해 수학에 흥미를 갖도록 합니다.

➔ 틀린 문제는 꼭 다시 풀어서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수학은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개념을 바로 잡고 원리를 확실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틀린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틀린다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평생 독자로 성장하는 독서 습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독서 지도 방법은 책을 읽어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읽기 경험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문해력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책을 읽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책과 부쩍 가까워진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Q&A

Q : 만화책을 보는 것도 괜찮은가요?

A : 무조건 제재하기보다는 다른 책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만화가 있는 책만 골라서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바른 독서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만화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조건 만화로 된 책을 금지하기보다는 재미있는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읽어 줌으로써 만화 이외의 책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어떤 책을 골라주는 것이 좋을까요?

A :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스스로 고르는 것입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함께 가서 아이 스스로 책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사이트의 추천자료 페이지에서는 매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추천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가족 독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나 요일을 정합니다. 부모님이 책을 읽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책을 읽고 난 후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과정에서 문해력도 자연스럽게 신장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먼저 책에 관한 질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책 내용을 물어보는 사실적인 질문에서부터 아이의 사고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추상적인 질문으로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 도서관을 자주 이용해요.

읽을 책을 스스로 고르는 과정에서 책에 관심을 갖고, 독서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독서교육 사이트

➔ 책열매



- 학생의 독서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도서 추천, 어휘 학습 등을 지원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 이용 대상: 초등 3~6학년 학생



※ 책열매 사이트 QR코드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 온라인 독후활동 사이트입니다. 독후감 쓰기, 퀴즈, 감상화, 동시 쓰기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활동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서 캠프, 사이버 독후감 대회 등 다양한 행사도 운영합니다.
- 이용 대상: 초·중·고등학생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사이트 QR코드

※ 이미지 출처: 교육부 독서교육지원 서비스

① 진단부터 지원까지 개인별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기초학력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의미합니다.

기초학력 보장

개인 맞춤형 기초학력 관리를 목표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진단과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여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다중 학습 안전망(‘수업 내 지원’, ‘학교 안 지원’, ‘학교 밖 지원’)을 통해 교육결손을 줄이기 위한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시행)계획 수립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학습 지원 교육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 이미지 출처: 경기도교육청, 교육분야 주요 입법성과 모음

Q&A

Q :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A : 학교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정서 및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 상담, 방과후 개별 학습 프로그램, 학습전략 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1학년도 진단평가를 보나요?

A : 1학기 말(7월~9월)에 한글 해득 수준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새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1학년 1학기는 한글 해득을 위한 집중교육 기간이라 별도의 진단평가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 1학기 말에 1차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한글 미해득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 교육을 실시합니다. 2학기 말(12월)에는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해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읽기 어려움, 난독증

흔히 낮은 지능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난독증은 신경학적 원인에 의한 학습 장애입니다. 따라서 지능이 높은 아동 중에도 난독증은 발견됩니다. 난독증이 있는 아동은 단어 인지가 어려워 문자 해독이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 것을 어려워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읽어 주면 잘 이해합니다.

연령대별 난독증 특성

➔ 초등학교 입학 전

- 말하기가 늦고, 혀 짧은 소리가 늦게까지 계속됩니다.
- 단어를 종종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긴 단어를 발음하기 어려워합니다.
- 글자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 이름을 쓰지 못하거나, 자음과 모음을 잘 모릅니다.

➔ 초등학교 저학년

- 이중모음이나 받침이 있는 단어를 잘 모릅니다.
- 익숙한 단어 외에는 잘 읽지 못합니다.
- 문자와 소리의 연결을 어려워합니다.
- 보고 쓰기는 가능하지만, 받아쓰기는 어렵습니다.
- 쓰기가 느리고, 글씨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 출처: 경기도교육청, 난독 극복할 수 있어요(홍강의 외, 소아정신의학 재인용)

Q&A

Q : 난독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나요?

A : 전문가의 조기 진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읽기 어려움이 지속되고, 또래와의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난독증 학생도 체계적인 발음 중심 교육 및 해독 훈련 등을 지속해서 받으면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체계적인 읽기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 난독증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A : 경기도교육청은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에 따라 학생을 지원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심층 진단검사 비용은 물론이고, 난독증 학생을 위한 맞춤형 읽기 학습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사 또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별검사 (3월)



학교

- 읽기 학습 특성 체크리스트 검사
- 학습저해요인 검사
- 학부모상담
- 선별검사 결과 제출
※ 1학년은 7월 실시

진단검사 및 읽기학습 지원 (4월~12월)



전문기관

- 난독증 관련 심층 진단검사 실시
- 학생 및 학부모상담
- 난독증 학생 맞춤형 읽기학습 지원 (20회기)
- 읽기학습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추가 지원

※ 출처: 경기도교육청, 난독 극복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아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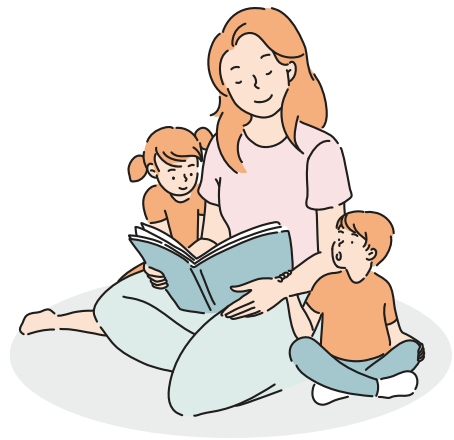
난독증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영상: 경기교사온TV, 난독증의 오해와 올바른 이해

➔ 다양한 장점을 칭찬해 주세요.

난독증 학생은 낮은 학업 성취도로 인해 자존감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에 실수가 있더라도 야단치기보다는 격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심리적 지지가 난독증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요

① 몸 튼튼 학생 건강검사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입학 전에 필수 예방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였으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전산 등록이 빠진 것입니다.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확인 대상 예방접종(4종)

- ① DTaP 5차
- ② IPV 4차
- ③ MMR 2차
- ④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예방접종 내역 조회

- ①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 ② 우리아이 등록 →
- ③ 접종내역 조회



예방접종 관리 우리아이 등록

자녀의 예방접종을 관리하기 위해
아이 장비를 등록합니다.

예방접종 관리 접종내역 조회

본인 및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조회합니다.

생애주기별 학생 건강검사

➔ 성장기 학생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거나 교내로 찾아오는 출장 검진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학교는 학생 건강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의 건강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계획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 초등학교 건강검사 항목

항목	대상	검사 내용
신체 발달상황	전 학년	키, 몸무게(비만도)
건강조사	전 학년	생활 습관, 병력 등 문진표에 의한 조사
건강검진	1, 4학년	소변검사, 구강 검사, 시력, 청력 등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입학 전 기본 건강검진을 받아요.

시력이 좋지 않아 칠판의 글씨가 안 보여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입학 전 기본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알레르기와 같이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자녀에게도 대처 방법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영구치를 잘 관리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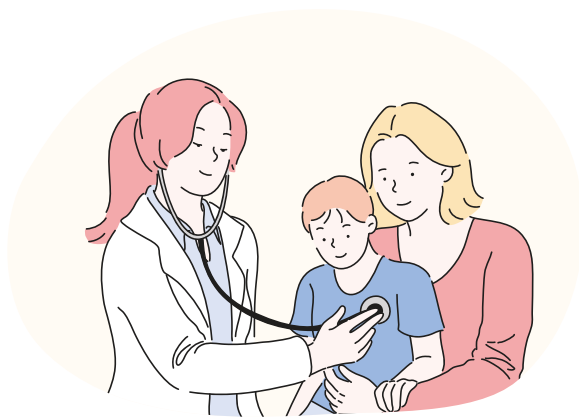
초등학교 1학년은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입니다. 치아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학교에서 치아가 빠지면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영구치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양치와 정기 검진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켜요.

우리는 자는 동안 피로를 회복합니다. 수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며, 신체 발달 및 뇌 발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최적의 수면 시간은 개인별로 다르지만 저학년은 8~10시간, 고학년은 7~9시간 정도를 추천합니다.

➔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요.

단맛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밥보다 간식을 더 좋아합니다. 에너지 보충을 위해 적정량의 간식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밥 대신 간식을 먹는 것은 비만을 유발합니다. 아동기 비만은 이후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체 발달에 필요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마음 튼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학생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매년 1·4학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통해 학부모님께 학생 개개인의 성격 및 특성에 맞는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의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 ➔ **방법:** 온라인(모바일)검사 또는 서면검사
- ➔ **내용:**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교폭력, 친구 관계, 자살생각 등 주요 정서·행동문제 전반
- ➔ **검사 절차**



- ➔ **결과 처리:** 검사 결과 기준점수 이상이면 관심군으로 선별하여 학교 내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심층평가 지원 등 지속적 관리

Q&A

Q : 검사 결과 관심군은 어떤 의미인가요?

A : 학생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 심층 검사 및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정서·행동 특성과 관련된 문항에 체크한 내용이 검사도구의 기준점수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집중력 저하나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Q :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나오면 전문기관의 심층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 학생과 보호자의 선택사항입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선별검사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연계되는 병·의원 등 전문기관의 심층검사를 통해 받게 됩니다. 검사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므로 받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의 정서적 성장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방문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관련 사이트

-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https://www.smhrc.kr> ☎ 02)6954-7247

1 건강할 성장을 지원하는 위(Wee) 프로젝트

위(Wee)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담과 심리 치유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Wee)는 청소년들의 감성을 세심하게 살피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다는 뜻으로 우리들(We), 교육(Education), 감성(Emotion)의 영문 앞 글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 이미지 출처: 우리가 희망이다 홈페이지

위(Wee) 프로젝트 기관

- ➔ 위(Wee)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망입니다. 관련 기관으로는 학교 내에는 위(Wee) 클래스, 학교 밖에는 위(Wee) 센터, 위(Wee) 스쿨 및 연계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경기도교육청, 우리 아이 마음 이해하기

Q : 위(Wee) 프로젝트 기관을 이용할 때 비용이 드나요?

A : 대부분 무료입니다.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 센터의 서비스는 경기도 내의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 위(Wee) 프로젝트 기관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담임선생님이나 위(Wee) 클래스 담당자, 관계기관 등을 통해서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우리 동네의 가까운 기관을 검색한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 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위(Wee) 센터를 이용할 때 출결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사전에 학교에 알려 동의를 얻으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위(Wee) 스쿨 및 가정형 위(Wee) 센터도 마찬가지로 해당 학교의 동의 및 정식적인 의뢰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학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 출처: 위(Wee) 홈페이지

**비대면 상담 서비스, 랜선 위(Wee) 클래스**

- ➔ 상담실 방문의 두려움이나 감염병, 결석 등의 이유로 대면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1:1 비대면 화상 상담 서비스입니다.
- ➔ 위(Wee) 클래스와 같이 학교생활, 교우 관계,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가정 혹은 학교 밖에서의 일들에 관해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랜선 위클래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상담 일정을 예약하면 됩니다.



랜선 위클래스

① 1학년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1) - 새학기 증후군

새학기 증후군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종의 적응 장애를 말합니다. 처음 학교라는 낯선 환경을 접하게 되는 1학년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증상으로 등교 거부나 부모님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새학기 증후군 테스트

→ 동의하는 문항에 체크(✓)하세요.

- | | |
|--|--|
| <input type="checkbox"/> 짜증과 화를 자주 낸다. | <input type="checkbox"/> 하교 후 평소보다 피곤해한다. |
| <input type="checkbox"/> 학교에 관해 이야기하기 싫어한다. | <input type="checkbox"/>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자주 말한다. |
| <input type="checkbox"/>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한다. | <input type="checkbox"/> 등교 전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한다. |
| <input type="checkbox"/> 식사량이 눈에 띄게 늘거나 줄었다. | <input type="checkbox"/>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불안해한다. |

✓ 5개 이상 해당한다면 새학기 증후군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Q&A

Q :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피병인 걸까요?

A : 새학기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새학기 증후군일 경우,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저학년 학생일수록 이런 증상을 자주 보입니다. 단순 피병인 경우도 있지만 학기 초에는 세심하게 관찰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것을 권합니다.

Q : 새학기 증후군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건가요?

A : 학생에 따라 다르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심할 경우에는 학습장애, ADHD 등과 연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성향에 맞춘 세심한 관찰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라면 아이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업적인 부담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입학 적응 Tip

입학 적응 Tip

Tip
01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것 알려주기

아이와 함께 앞으로 다닐 학교에서 운동장, 신나는 미끄럼틀 등을 구경하고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Tip
02

헤어짐 연습하기

엄마와 떨어져 있는 시간에 대해 차근차근 이유를 설명해 주고 짧은 시간부터 조금씩 헤어짐을 연습해 보세요.

Tip
03

친근한 환경에서부터 천천히 연습하기

무작정 낯선 곳에서 연습하면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친구, 친척, 이웃 등 낯익은 환경에서 적응하도록 점차 시간을 늘려 연습해 보세요.

Tip
04

함께 있을 때 충분한 애정으로 안심시켜 주기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아이는 분리불안 증세를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Tip
05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늘려주기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스스로 부딪힘을 느끼게 자립심을 키워주세요.

※ 출처: 경기도교육청 블로그

① 1학년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2) - 아동 우울증

아이들의 우울증은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남녀 간에 증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여자 아이들은 우울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남자 아이들은 말 대신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또 성인 우울증과 달리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몇몇 일에 유독 집중합니다. 이런 이유로 게임에 지나치게 빠져들거나 TV, 휴대전화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의욕 저하, 짜증, 식욕 감퇴, 폭식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소아정신과 의사 서천석의 우리 아이 관찰야요

아동 우울증 예방법

- ➔ 꾸준히 운동하기: 태권도, 인라인스케이트, 수영, 축구와 같이 아이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 ➔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하기: 부모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생활에서 아이와 자주 연습하면 도움이 됩니다.

※ 출처: 교육부,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면 이렇게 도와주세요

① 1학년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3) - ADHD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는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동기에 많이 보이는 장애로,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주로 발견됩니다.

ADHD 진단 테스트

➔ 동의하는 문항에 체크(✓)하세요.

- 주의를 세심하게 기울이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실수를 자주해요.
- 과제 수행이나 놀이 중 자주 주의집중이 어려워요.
-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잦아요.
-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심부름, 업무를 끝내지 못하는 수가 잦아요.
- 과제나 조직적인 활동 시 곤란을 자주 겪어요.
- 지속적으로 정신을 쏟아야 하는 일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요.
- 과제나 활동에 필요한 것을 자주 잃어버려요.
-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주의가 산만해져요.
- 일상적인 일을 자주 잊어버려요.



6개 이상 해당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출처: 경기도교육청TV, 주의력부족 ADHD 아이를 둔 부모를 위한 방법

경계 세우기

➔ 스스로 행동 조절이 힘든 아이들에게는 행동의 제한과 경계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학년은 학습 태도뿐만 아니라 기본생활 습관도 익혀야 하는 시기라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1학년 학생에게 꼭 필요한 경계 목록이니 기억해 두셨다가 반복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기본생활 습관: 식사 방법, 손 씻기, 잠자기, 옷 입기 등
- ② 정리 정돈: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정리하기, 내 물건 개수 세어보기 등
- ③ 학습 태도
 - 의자에 바르게 앉기(놀이처럼 처음에는 1분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리기)
 -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공부하는 습관 기르기
- ④ 안전과 관련된 행동
 - 갈등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화로 풀기
 -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위험한 물건(칼, 나무막대 등) 가지고 놀지 않기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숙제와 준비물을 스스로 챙기도록 도와주세요.

알림장을 적어오지 않거나, 전달 사항을 잘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학년 때는 중요한 사항을 엽이나 문자, 알림장 등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안내하는 학교가 많으니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준비물 바구니를 만들어 두고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가장 먼저 숙제와 준비물을 적도록 합니다. 필요한 것을 바구니에 담고 표시하며 스스로 책가방을 싸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해주세요.

산만한 아이에게는 엄격한 목소리로 말하여 주의를 끌고, 집중력이 사라지기 전에 짧은 문장으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우리 어제 텔레비전을 많이 봤으니까 오늘은 일찍 자는 게 좋을 거 같아. 방으로 들어갈까?

➔ 잘 시간이 지났어. 침대로 들어가.

➔ 운동이나 신체놀이를 할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 몸 속 에너지를 발산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에너지를 조절하는 능력은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바탕이 되어 집중력 향상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줄넘기, 축구,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도 좋고 규칙이 있는 운동을 힘들어하는 아이라면 달리기, 얼음 땡, 그림자 밟기와 같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놀이도 좋습니다.



03

두근두근, 1학년 첫걸음

학부모로 거듭나기

①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참여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면서부터 ‘부모’는 ‘학부모’가 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기대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학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학생, 학교, 학부모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학교 적응, 학업 성취, 사회성 향상에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 ➔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 지역사회 봉사활동
- ➔ 담임교사와 학부모상담
- ➔ 교통 도우미
- ➔ 공개수업 참여
- ➔ 학교교육 모니터링
- ➔ 학교 초빙교사 추천
- ➔ 급식도우미 참여
- ➔ 학교회계 예·결산 참여
- ➔ 부모 역할 훈련 참여
- ➔ 학부모총회 참여
- ➔ 기타 학교행사 참여
- ➔ 식재료 검수
- ➔ 도서관 교육자료 선정
- ➔ 학교설명회 참여
- ➔ 학부모교육 참여

Q&A

Q : 학부모는 엄마, 아빠만을 의미하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부모가 해당되지만, 부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친권자, 후견인 등의 학생 보호자를 지칭합니다.

Q : 맞벌이 가정이라 교육참여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요?

A : 교육참여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학부모님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공개수업, 학부모총회와 같은 직접 참여부터 설문조사,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간접 참여까지 모두 교육참여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학부모님께서 교육참여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교육참여 활동은 시작되며, 가정과 학교의 원활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녀교육과 학교교육을 위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동의하는 문항에 체크(✓)하세요.
- 학부모 교육참여에 관심이 있으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부모 교육참여가 학교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학부모 교육참여가 자녀와의 소통과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인 학부모 교육참여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부모상담 주간에 참여하여 교사와의 면담을 적극 활용한다.
 - 학교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학교행사에 참가하거나 관람하였다.
 - 학부모 자원봉사 및 교육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p>✓ 8개 이상 교육참여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입니다.</p>	<p>✓ 6~7개 교육참여와 자녀교육에 긍정적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p>	<p>✓ 5개 이하 학교교육, 자녀교육 및 소통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죠?</p>
---	---	---

학부모 교육참여의 긍정적인 효과

☞ 학교교육에의 학부모 참여는

 <p>자녀의 학교생활 및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p>	 <p>자녀의 학업 성취와 자기조절 수준을 높입니다.</p>	
 <p>학교와 교육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p>	 <p>또래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p>	 <p>자녀의 행동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p>

① 모든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 학부모회

학교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로서,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이고, '대의원회'는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 및 기능

➔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

- 구성원: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
- 조직: 총회, 대의원회, 학년·학급 학부모회, (필요시) 기능별 학부모회
- 임원: 회장, 부회장, 감사(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함)

➔ 학교 학부모회의 기능

-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Q&A

Q : 학교 학부모회에 가입하기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나요?

A :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님은 학교 학부모회 회원이 됩니다.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 학부모님은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원이 되고, 그분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모여 학부모회 임원이 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공적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협력해 주세요.

학부모의 책임은 자녀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것이며, 학부모가 책임을 다할 때 자녀의 성적과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기 자녀만을 위한 마음으로 인해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치맛바람'으로 폄하되기도 했습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한 마음, 공공선의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학부모로서의 공적 권리이자 책임에 해당됩니다.

이때 학생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의 권리를 상호 존중하며 교육주체로서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① 학교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등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급식 등

Q&A

Q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학부모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학교 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권, 보고 요구권, 시정명령 신청권 등을 갖습니다.

학교 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자치기구로서 단위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교실 속 자녀를 만나는 학교 수업공개

수업공개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학습활동 모습을 참관하며 학교교육과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수업공개の日', '수업공개 주간', '방과후학교 공개수업' 등의 이름으로 연 1~2회 운영됩니다.

학교 수업공개 참여 방법

수업공개 전

공개수업 안내장 확인

공개수업 참관 신청

수업공개 당일

등록부에 서명, 참관록 수령

공개수업 참관

교사에게 참관록 제출

수업공개 참여 시 지켜 주세요

- ➔ 휴대전화 벨 소리, 대화 소리 등은 수업에 방해되므로 참관 중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 수업공개는 교사의 수업 방식을 평가하거나 학생 간 실력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며 수업을 보서는 안 됩니다.
- ➔ 수업공개는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상황이므로 평소 자녀가 수업 때 보이는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 ➔ 사진 촬영, 녹음은 학생들과 교사의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수업, 이렇게 살펴봐 주세요

- ➔ 수업 준비가 잘 되어 있나요?
- ➔ 선생님과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나요?
- ➔ 선생님,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한가요?
- ➔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나요?
- ➔ 어떤 활동을 할 때 적극성을 보이나요?
- ➔ 배운 내용을 자신의 말이나 글로 정리했나요?
- ➔ 수업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점이 있나요?

1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학교설명회

학교설명회는 가정과 학교가 소통하는 장으로서, 학교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 학부모를 위해 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학생생활 규정, 건전한 학부모 교육참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학교설명회 후에 학년이나 학급 단위로 진행되는 교사와의 간담회에 참여하면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설명회의 주요 내용

- ➔ 학교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 ➔ 학부모 교육참여 활동 정보
- ➔ 학교 교육계획, 규정, 학교 소개
- ➔ 문의사항, 고충처리 방법
- ➔ 학년·학급별 운영 계획
- ➔ 연간 학교행사 및 운영 계획
- ➔ 학부모 특강(진로교육 등)
- ➔ 상급학교 진학 및 입시정보 안내

2 부모됨을 함께 배우는 학부모교육

학부모교육은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을 기르고 인성교육 등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을 지원합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단위학교(학부모회), 학부모지원센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시·군청), 평생교육학습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학부모 역량 강화

부모 역할 이해,
성장 단계별 자녀교육 역량 강화 등

자녀교육 정보 제공

교육정책 이해,
건강한 학부모 교육참여 등

학부모 평생교육

진로·직업교육,
학부모 이후 부모교육,
학부모 학습공동체 등

경기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

- ➔ 경기학부모지원센터는 '학생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가정-학교 간 따뜻한 동행'을 비전으로 기관별 학부모 온라인 교육콘텐츠, 학부모교육 자료, 온라인 학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기학부모지원센터

① 자녀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학부모상담

학부모상담은 담임선생님과 자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상담할 좋은 기회입니다. 집에서의 자녀 모습과 학교에서의 자녀 모습은 의외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의 모습에 대해 반드시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장단점에 대하여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아이의 올바른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학부모와 교사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학부모상담, 이렇게 해요

① 상담 협의 후 찾아가기

- 가급적 1주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상담 시간을 정합니다. 1주일 동안 담임선생님은 아이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수업 태도와 교우관계 등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님과 자녀에 대해 깊이 있는 상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②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경청하기

- 학부모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생활태도, 가정환경, 성장 과정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교사, 학교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늦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자녀의 단점 수용하기

-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담임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아이의 단점에 대한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④ 자녀의 장단점 전달하기

- 담임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아이의 장점은 아이에게 꼭 말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더욱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점에 대해서 심하게 다그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선생님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되면 학교에서 아이를 지도할 때 큰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⑤ 자주 상담하고 소통하기

- 학교에 방문하기 힘든 경우 알림장, 메모, 전화 상담을 통해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소통을 통해 오해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학교와 소통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알림장과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할 경우, 학기 초에 안내받은 방법을 이용해 적절한 시간에 연락하도록 합니다.



알림장

- 글씨를 쓸 수 있는 학생이라면 알림장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면 좋습니다.
- 글씨를 쓰기 어려운 학생이라면 출력물로 알림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 상담의 경우 직접 면담이 가장 이상적이나 면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 통화, 문자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교사의 근무 시간(일반적으로 08:40~16:40) 내에 수업 시간을 피해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 학교 전체 행사에 대한 공지사항이 수시로 탑재됩니다.
- 출결과 관련된 서식이 게시판에 탑재되어 있어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장 앱(가정통신문)

- 알림장,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학교에서 사용하는 앱(학교종이, e알리미 등)을 다운로드 받아 학생 정보를 입력하면 학교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알리미

- 학교현황, 교육활동, 학교시설, 학교급식 등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 또는 학교알리미 앱에 접속하여 이용합니다.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서비스

- 자녀의 학교정보뿐만 아니라 성적, 출결, 학교생활기록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이스 대국민 사이트(www.neis.go.kr)의 회원 가입, 로그인, 자녀 등록, 자녀 승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❶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청탁금지법

01

담임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 등 선물을 가져가도 되나요?



02

학부모회 일동으로 전체 선생님께 간식을 드려도 되나요?



03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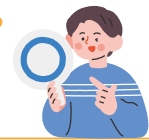
학생에 대한 평가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께는 5만원 이내라도 줄 수 없음



04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나요?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드리는 꽃은 허용,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안 됨



05

상급학년으로 진학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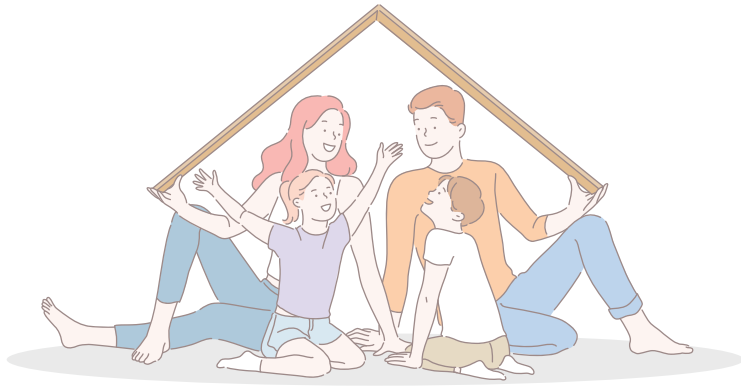
현재 담임선생님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함



06

쿠키나 수공예품처럼 직접 만든 것을 선물로 드려도 되나요?





2024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부모, 학부모가 되다



2024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부모, 학부모가 되다



차근차근, 모두를 위한 한걸음

- 1. 함께 걷는 학습권과 교권 66
- 2. 함께 지키는 평화로운 학교 80
- 3.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98



이

차근차근, 모두를 위한 한걸음

함께 걷는 학습권과 교권

가 학교를 만난 인권

인권은 성별, 연령, 인종, 국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 등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인권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는 것으로,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분,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참여의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 이미지 출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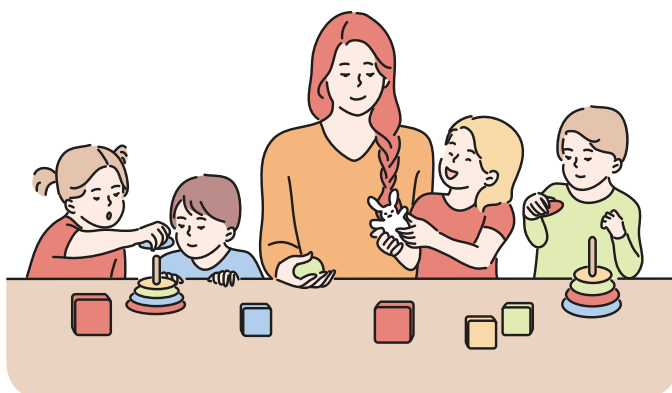
내 권리를 알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교육

- ➔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권리와 책임을 지닌 시민과 시민이 만나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인권교육

- ➔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는 교육
- ➔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 능력을 길러 인권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교육



나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담고 있는 학생의 인권

- ➡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 ➡ 학생의 인권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정·개정·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담고 있는 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 교장 등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예체능,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건강한 학교를 위한 발돋움, 교권 보호 4법



- ➔ 학생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 ➔ 교원을 상대로 한 분별없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Q&A

Q : 교권 보호 4법은 왜 개정되었나요?

A : 교권 보호 4법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에 근거한 교원의 전문성과 정당한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교육받을 권리)을 보장하여 학생들이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성장·발달해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보장한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교육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초·중등 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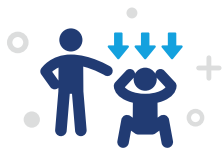
- ➔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Q&A

Q :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침해받을 수 있는 학생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A : 교원의 교육활동과 정당한 생활지도를 침해하는 행위는 교실 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학생 문제 행동 3단계(예시)**

단계	설명
1단계 경미한 문제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지만 교육활동을 중단할 정도는 아닌 수준의 활동 ※ (예시) 산만한 수업태도, 잦은 소음, 시간 어기기 등
2단계 심각한 문제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분위기를 상습적으로 저해하거나 교육활동을 불가하게 하는 수준의 행동 ※ (예시) 교사의 지시 불이행,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교실 내 자리 이탈, 핸드폰 무단 사용, 학습활동 거부 ※ 경미한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문제행동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음
3단계 매우 심각한 문제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본인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로 즉시분리가 필요한 수준의 행동 ※ (예시) 신체폭력, 심각한 언어폭력, 성폭력, 흉기 소지 등의 위해, 교실이나 학교 이탈, 이탈 후 배회, 그 외 극단적으로 위급한 상황 등

※ 출처: 현장교원 정책TF 연구보고서



관련 판례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 ▶ 교원의 수업권은 교육권의 포괄적 개념 가운데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권리(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0헌마278 결정)로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학습권)의 보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교육상의 직무권한임
- ※ 교원의 수업권은 「교육기본법」 등의 법령의 범위와 교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임

- 대법원 2005다25298 판결 -

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법적 근거



Q : 교원의 생활지도와 학생인권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Q&A

A :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까닭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를 뜻합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학교폭력, 위해·위험요인 등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 등 학생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려는 의미입니다.



관련 판례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및 그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교육기본법」제9조, 제12조, 제14조), 이러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그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2두39185 -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학업 및 진로



-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와 사용
- 진로 및 진학과 관련된 사항

보건 및 안전



-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인성 및 대인관계



-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그 밖의 분야



-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비행 및 범죄 예방
-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Q :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에 대한 학생생활지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Q&A

A :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가 추구하는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복장에 관한 사항과 바람직한 용모 등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복장 및 용모 지도 사례

- 특정 종교·인종·집단에 대한 혐오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
- 과도한 노출 등 학교가 추구하는 문화에 부적합한 복장 착용을 하지 않도록 지도
- (교복이 있는 경우) 학교가 정한 교복을 미착용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방식

→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조언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권고

상담



- 학생을 돕기 위한 소통
- 상담 예약 및 사전 협의 필요

주의



- 학교안전 및 질서 유지 위해 우려 시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

훈육



- 학생의 긍정적 행동 변화를 위한 지시, 제지(물리적 제지 포함), 분리, 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

훈계



- 권리, 의무,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과제 부여(대안행동, 성찰문, 훼손 시설 및 물품 원상복구)

보상



- 학생 동기부여를 위한 칭찬과 상

Q&A

Q : 학생생활지도 방식은 학교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가요?

A : 학생생활지도 방식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근거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칙을 제정합니다. 따라서 각 학교마다 제정된 학칙에 따라 상담 절차와 방식, 훈육 및 훈계의 세부 규정(시행 요건, 장소, 시간, 학습 지원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 상담은 보호자와 교원 서로 간에 요청할 수 있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교육적 필요로 보호자와 교원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 방식으로서의 상담은 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과정입니다.

Q : 보호자에 의한 상담 요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A :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담 요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 시간 외의 상담 등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담 거부 상황(예시)



긴급한 사유가 없는
수업 시간 상담 요청



사전 연락 없이 학교를 방문한
보호자의 상담 요청



보호자의 개인 문제에 대한
상담 요청



보호자의 직장 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한 교원 근무 시간 외
상담 요청



폭언이나 민원 등을 활용한
보호자의 상담 강요 요청



야간이나 주말에 SNS 등으로
상담 요청

Q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방식 중 물리적 제지는 체벌을 의미하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됩니다.

‘물리적 제지’와 ‘체벌’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물리적 제지는 긴급한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의 위해를 감소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훈육을 위해 일상적인 상황에서 실시되었던 체벌과 무관합니다.



물리적 제지의 요건



복도, 계단 난간 등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거나 뛰는 경우



타인에게 정서적·신체적 폭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가하는 경우



도구 등을 활용하여 자해를 하는 경우



흥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휘두르는 경우



인화성 물질과 화기를 이용한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마약성 물질 등 위험한 물질을 흡입하는 경우



관련 판례

정당한 물리적 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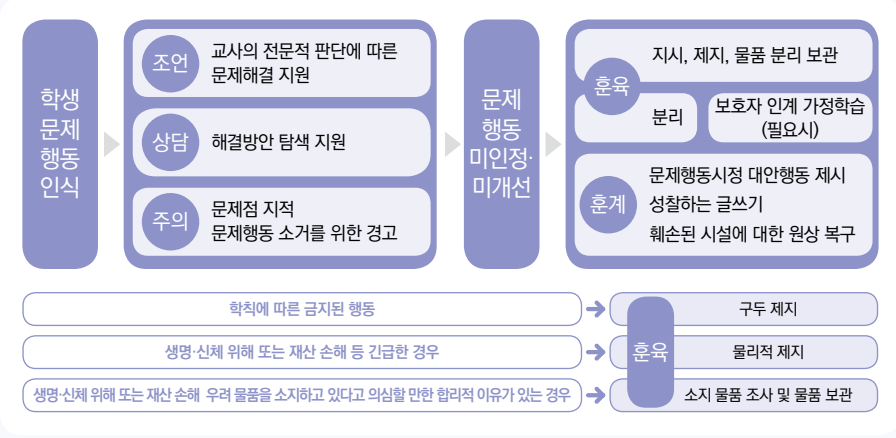
▶ 교사가 아동이 같은 학급 여자 아이들과 싸워 훈계하던 중임에도 본인 자리로 돌아가자 쫓아가 아동의 왼쪽 팔뚝 부위를 세게 잡아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찰과상 등을 가해 신체적 학대

⇒ **학대 불인정** 교사는 아동들을 학교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훈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른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말로 제어가 되지 않는 아동의 양팔을 잡고 그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학대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대전지법 2021고정992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절차

➔ 교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생활지도도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교시 해설서

Q&A

Q : 학생생활지도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나요?

A : 상황에 따라 교원이 판단한 학생생활지도 방식이 우선적용 될 수 있습니다.

훈육은 교육활동 상황에서 조언이나 상담 또는 주의를 했음에도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훈육 전에 실시하는 조언이나 상담, 주의는 사전에 이루어지면 충분한 것으로 반드시 당일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학칙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구두 제지를 바로 할 수 있고,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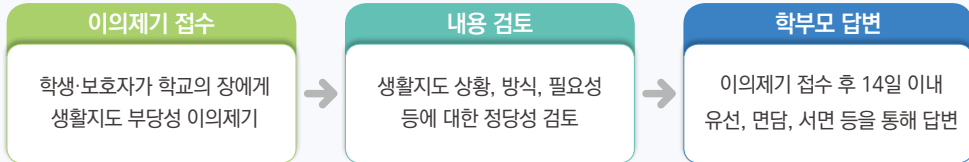
Q :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가 발생한 경우 학부모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의 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선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 제지가 발생한 일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 등을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이의제기 절차

-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 선택 권한

- ▶ “학급 담당교사는 수업 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사가 장애 학생에 대하여 시행한 교육 방법이 위와 같은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 및 학급의 교육환경, 학생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채택한 교육방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교육방법이 당해 학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에 해당되거나 장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2다95134 -

마 기타 교육 관련법 Q&A

Q&A

Q : 교원의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물어볼 수 있나요?

A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전화 및 교사가 공개한 전화번호, 애플리케이션 등의 수단을 통하여 근무 시간 내 소통이 가능합니다.

Q :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할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는 개인 통신용 스마트폰,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됩니다.

Q : 심리상담 또는 정서행동에 관한 문제를 선생님과 논의할 수 있나요?

A : 선생님과 심리상담 또는 정서행동에 관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심리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Q : 공교육정상화법(약칭)이란 무엇인가요?

A :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선행학습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교육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공교육 정상화 실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 공교육정상화법은 왜 제정되었나요?

A :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앞선 선행교육은 학생들 사이의 지난 경쟁을 유발함은 물론 사교육비 증가 및 선행 학습을 조장할 수 있어 그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및 정서 발달 단계를 토대로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는 교육이 아닌 해당 발달 시기에 맞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탐구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모두를 위한 한걸음

02

함께 지키는 평화로운 학교

가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요

1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정신,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A

Q : 우리 아이가 한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A : 학교폭력의 기준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학교폭력의 기준은 때리거나 괴롭히는 가해자 입장이 아닌 모든 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장난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면 이것은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강요/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 출처: 에듀넷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홈페이지



간단하게 구분하는 학교폭력 행위

➔ 돈을 빌린 것과 갈취의 차이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언제나 갚으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으면 빌린 것이고, 무서워서 갚으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갈취, 즉 뺏는 것입니다.

➔ 장난과 폭력의 차이

장난은 모두가 즐겁게 웃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로우면 폭력입니다.

➔ 친구의 SNS에 장난으로 '나쁜 X, 못된 X'라고 몇 자 적은 경우

언어폭력에 해당되며 상대방의 인격을 비방하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휴대전화로 욕설 문자를 보내는 것도 모욕, 협박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❶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문제 상황에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법적 개념으로 구분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상황을 보면 일반적인 가해와 피해의 개념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가해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 두고 부모로서 교사와 협력하여 교육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Q&A

Q :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먼저 상황을 확인하여 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상담합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했을 때, 학부모의 올바른 대응은 자녀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할 경우

- 1 가해학생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 2 피해 사실이 큰 경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얼마 동안' 일어난 일인지 자녀에게 물어서 작성합니다.
- 3 자녀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건교사나 의사에게 자문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 4 주변 친구의 증언과 물증(사진, 녹음 등), 다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합니다.
- 5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상담합니다.

학교폭력 가해를 했다고 인지할 경우

- 1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았을 때, 모른 척하거나 감싸면 안됩니다.
- 2 객관적으로 정확히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떠한 폭력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왜 그랬는지의 상황과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3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상담합니다.



학교 내 신고가 두렵다면(교외 신고 방법)

-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국번없이 117, (문자)#0117, (방문)직접 방문하여 신고·상담
- ➔ 안전Dream: <http://www.safe182.go.kr>
- ➔ 학교전담경찰관: 전화 또는 문자 신고

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1)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로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전담기구를 둡니다.

학교의 장과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부모 위원 등으로 사안을 접수하면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Q&A

Q : 학교폭력 신고 후, 사안처리 절차가 궁금해요.

A : 학교폭력의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거나 교육청 결정단계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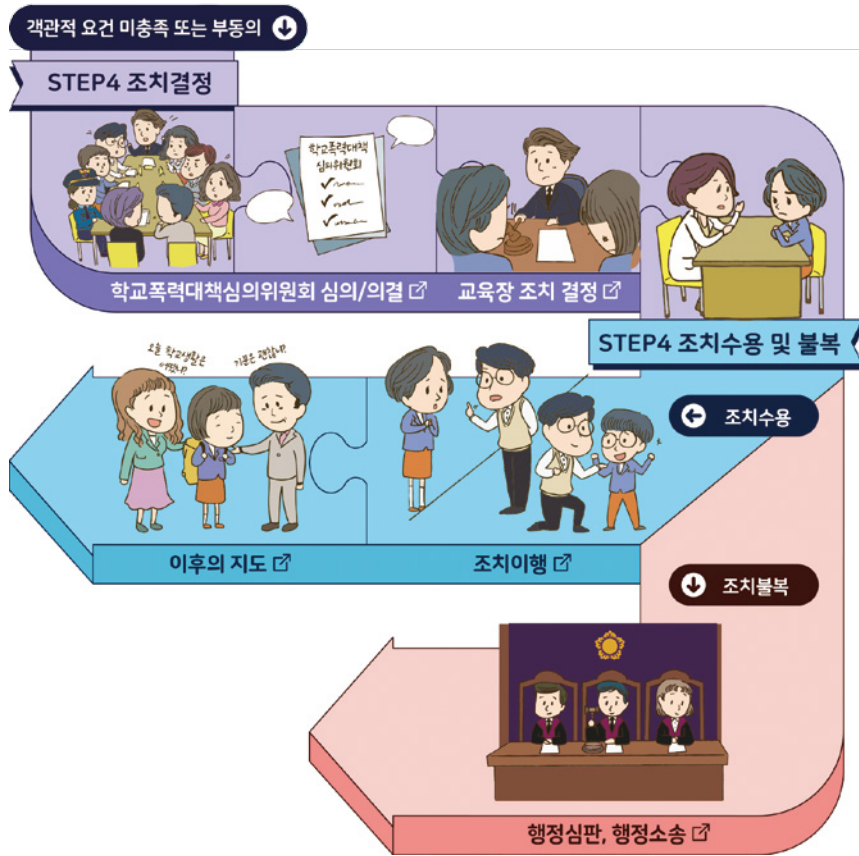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건의 요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체해결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조치 결정으로 넘어갑니다.



※ 출처: 에듀넷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홈페이지

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심리상담 및 조연,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등으로 조치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출석일수 산입, 성적 평가 등).



※ 출처: 에듀넷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홈페이지

💡 학부모의 자세

- ➔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학교폭력의 심의 기간 동안 아이를 탓하거나 피해 사실을 축소, 은폐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보복이나 도피의 방법은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을 회피하거나 정당화하는 행동 또는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는 마음가짐은 문제 해결에 독이 됩니다.

① 학교폭력, 예방이 우선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수록,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을수록, 학부모가 학교생활이나 친구들에 관해 자주 물어볼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Q&A

Q :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A :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학교폭력'과 같은 현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처벌이라는 개념적으로 접근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른들의 잦대인 법적인 처벌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꾸준히 지도하여야 됩니다.

Q : 저학년의 경우, 어느 선까지 학교폭력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A :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먼저 상담합니다.

전화하기에 앞서 부모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소한 장난이 습관이 되어 사사건건 괴롭힌다고 느껴질 때, 동일 이름의 친구가 자주 언급되고 구체적인 상황들이 묘사될 때, 그리고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한꺼번에 괴롭히는 일들이 반복된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 ➔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6가지 역량(공감, 의사소통, 감정 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을 통해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부모가 되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부모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좋은 가족 관계 및 친구 관계는 학교폭력을 예방합니다.
- ➔ 자녀는 평소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모에게 어려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 ➔ 부모님의 허용적이고 민주적인 양육 태도가 좋은 친구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 ➔ 모든 친구를 소중하게 대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 ➔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약속을 잘 지킵니다.

어울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교육에서는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 협업역량 등 사람 사이의 관계에 기반한 역량을 중요하게 제시합니다. 학교 부적응 역시 관계 기반의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이와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1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껴봐요(공감)

오른쪽의 표정 카드를 보고 어떤 감정인지 자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간은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친구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 친구의 마음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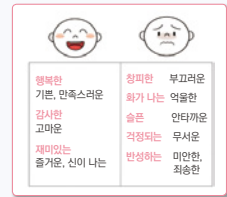


2 말하기 척척, 듣기 척척 (의사소통능력)

대부분 아이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의사소통능력은 잘 듣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듣거나 말할 때 경청의 의미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말하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는 말들을 부모님이 자주 한다면 아이들도 친구들에게 같은 표현을 쓸 것입니다.

3 감정도 이름이 있어요(감정 조절)

감정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기본적인 감정은 알지만 구체적인 감정의 종류를 구분하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질투, 창피, 반성 등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상황을 통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한 감정들이 들 때,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으로 같이 답을 찾아보는 방법을 권유합니다.



4 나를 알고 사랑해요(자기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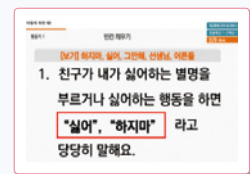
사랑받은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은 자기존중감이 낮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기 힘듭니다.
자기존중감을 갖는 기본은 자기 자신에 대해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알고 장점을 찾아보면서 칭찬 및 격려를 받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다른 사람 역시 그렇게 대합니다. 가정에서 아이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의미있는 칭찬과 격려의 대화들을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5 갈등과 친구가 되어요(갈등해결)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갈등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가족 내에서도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부모님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가족회의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다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6 우리는 좋은 친구(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아이에게 학교는 하루 일과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는 평화로워야 하며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폭력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학교폭력에 대처해야 하는지 부모님의 구체적인 코칭이 필요합니다.



※ 참고: 경기도교육청 어울림 프로그램 초등 1~2학년

나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요

1 성폭력의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성폭력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Q&A

Q : 1학년 아이에게 사실적인 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A : 올바른 성교육은 어릴 때부터 반복하여 교육되어야 합니다.

1학년 시기에는 성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시기가 '순수한 우리 아이에게 성(性)을 가르쳐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오히려 성에 대해 편견 없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잘못된 성행위를 구분할 인지적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性)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에서의 지도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별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좋은 비밀'과 '나쁜 비밀'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기표현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참고: 경기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성교육 주제

- ➔ 자신의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
- ➔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표현하는 방법
- ➔ 남자 몸과 여자 몸의 다른 점
- ➔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
- ➔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존중

① 성폭력 피해 관련 개념

성희롱은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행이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포함합니다.

Q&A

Q : 1학년 아이들끼리의 성적인 장난과 성폭력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A : 성적인 장난도 성폭력이며 아래의 초등학교 사례들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 ① 친구의 가슴을 가리키며 ‘찌찌’라고 말한 B양
- ② 화장실에서 호기심으로 B군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A군
- ③ 평소 친한 사이였던 B양에게 억지로 볼보보를 한 A양
- ④ B군의 바지를 내리는 척하려다가 바지를 내려 버린 A군
- ⑤ 옷옷을 벗어 맨몸을 친구들에게 보여준 B양

1학년은 발달 단계 상, 신체를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이 받을 영향을 생각하여 조심하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지도

- ➔ 성인지 감수성은 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① 자기 경계를 인지하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지도합니다.



- ② 동의를 구해야 할 상황을 인지하도록 지도합니다.



- ③ 내 몸은 나의 것이므로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연습시킵니다.

※ 출처: 여성가족부 성인지교육교재



학교 내 신고가 두렵다면(교외 신고 방법)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www.kigepe.or.kr/>
- ➔ 젠더온: <https://genderon.kigepe.or.kr>

①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A

Q : 실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 성폭력 발생 직후의 대응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 피해를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이나 ONE-STOP 지원센터에 신고합니다. 또한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존합니다.

- ① 아이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몸을 씻지 않은 채 병원 진단을 받습니다.
- ②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녹음,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 ③ 학교에 연락한 후, 학교의 조치에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 및 배려를 요청합니다.
- ④ 사건 수사, 민사 소송 등 법적 문제, 자녀 치료 등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학령별 성폭력 피해 징후 및 후유증



아동(학령기)

- ➔ 우울해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눈치를 많이 보는 행동
- ➔ 악몽 등의 수면장애를 겪음
- ➔ 지나치게 순종적이거나 공격적, 반항적인 행동
- ➔ 주의집중 곤란 및 학업부진 및 또래관계의 곤란
- ➔ 연령에 맞지 않는 성에 관한 지식
- ➔ 강박적인 행동(젖은 양치질, 손씻기, 속옷 갈아입기 등)
- ➔ 갑자기 씻기 싫어하거나 옷 갈아입기를 싫어함

※ 출처: 경기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



성폭력 신고

- ➔ 성폭력 신고: 117
- ➔ 학교폭력(성폭력)상담: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1366
- ➔ 경찰지원센터 안전Dream: <http://www.safe182.go.kr>

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Q&A

Q :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A :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지도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불법 촬영, 사진 합성,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공유, 성적 괴롭힘, 협박 등을 핸드폰이나 인터넷 상에서 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대처 순서



아동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 1 다른 친구의 사진, 영상 등을 동의 없이 합성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 2 나와 다른 친구의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 3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 4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 5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부모님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 1 아이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 2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다른 이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3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위험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디지털 성폭력 신고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다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켜요

①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Q&A

Q : 한두 번 때린 것도 아동학대인가요?

A : 일회성의 체벌이라도 고의적이라면 아동학대입니다.

고의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것은 신체학대에 해당합니다. 현관문 밖에 세워두는 것 또한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한 경우, 체크 항목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번	체크항목	체크란	
		예	아니오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혹적인 행위를 당한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9	성학대로 의심될 성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15	아동학대 체크리스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 의심 사항: _____)		

※ 출처: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

훈육할 때, 기억할 3가지

- ➔ 어떠한 경우라도 때리지 않습니다. 체벌은 훈육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심호흡과 함께 감정을 추스르고 아이와 잠깐 눈을 맞춰 봅니다.
- ➔ 사랑스런 눈빛과 함께 아이에게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봅니다.

① 아동학대 신고 의무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교사직, 의료직, 공무원 직군 등)은 신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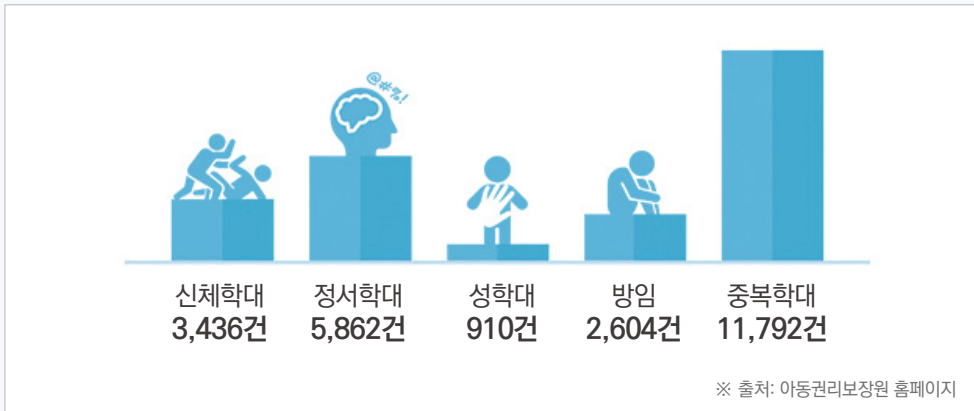
Q&A

Q : 70대 노인이 9살 아이를 꺼안고 보뽀하는 것도 아동학대일까요?

A : 피해자인 아동의 시각과 입장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신체 접촉을 했을 때 당사자인 아이의 진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볼에 입을 맞출 때 아이는 원하지 않았고, 기분이 나쁘거나 무섭다는 등으로 아이가 진술을 한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중, 성학대에 해당되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 1 **신체학대**: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2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로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 3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4 **방임 및 유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함

1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음성화된 폭력은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며 인권침해의 악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아동이 가정폭력에 노출된다면 이 또한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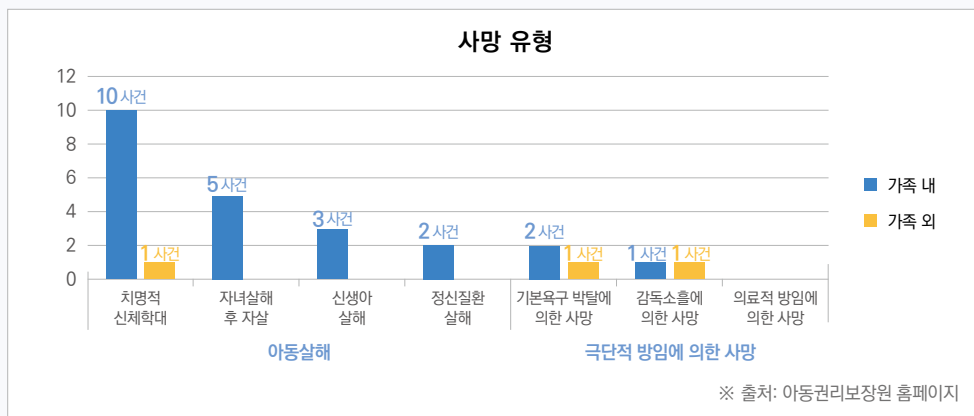
Q :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 시 비밀전학이 가능할까요?

A : 학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전학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응급조치되는 경우,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제3항,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3(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비밀전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유형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유형을 보면 가족 내의 발생 비율이 높으며 신체학대의 원인이 높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체벌'은 벌이 아닌 폭력이며 누구에게도 타인의 신체를 훼손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며 독립된 인격체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신고

- ➔ 아동학대(가정폭력)신고: 112
- ➔ 보건복지콜 센터: 129
- ➔ 아동지킴이콜: 112 어플(아동학대 정보 검색과 신고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라 편견 없는 세상을 꿈꿔요

① 통합교육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학생이 한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받는 교육 방식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같이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일반 학급을 '통합학급'이라 지칭하며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 학교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예 : 도움반, 사랑반, 누리반 등).

Q : 장애인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Q&A

A : 장애인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정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선정됩니다.

통합교육의 장점

- ▶ 통합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합교육을 통해 자신의 연령에 맞는 발달 단계별 행동을 보고 이해하며, 일반 학생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올바른 이해와 배려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또래 집단과 지내며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고, 또래 학생들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 누구에게나 잘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은 장애로 인해 못하는 것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함께 노력하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의 부족한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 ▶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고 다리를 다치면 목발을 짚습니다. 팔을 다쳤을 때는 누군가가 내 가방을 대신 들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은 보다 많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①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Q : 특수학급에 입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A

A : 보호자가 아이의 소속 학교나 교육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명확한 경우, 입학부터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 측 교사와 학부모의 동의로 입급이 되기도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 특수교육대상자로 접수가 되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30일 이내 실시합니다. 검사 후 2주 이내에 선정 여부 및 지원내용이 결정되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며 배치된 학교에 통보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진단·평가와 정보 관리, 교수·학습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특수학급 미설치교 및 자택 방문교육) 등이 있습니다.
 - ① 치료 지원: 외부기관 이용(월 최대 16만원 이내 실비)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언어재활 지원 중 택1
 - ② 편의 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각종 학습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참여 확대
 - ③ 방과후 운영 지원: 방과후 수강권(월 최대 16만원 이내 실비) 지원
 - ④ 교육 상담 및 가족 지원: 학생 가족 심리상담 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⑤ 원거리 학생 통학편의 지원(대중 교통비 지원)
 - ⑥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육 지원 시설

- ➔ 경기도교육청 특수지원센터: <https://more.goe.go.kr/>
-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https://www.nise.go.kr/>

마 가족의 다양성을 이해해요

1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생각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친구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문화 역량을 함양하고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에 도움을 주며 자긍심 함양 및 잠재적 재능 계발로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교육입니다.

Q : 미등록 외국인일 경우에도 입학이 가능한가요?

Q&A

A : 미등록 외국인일 경우에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신원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문화 학생 유형

- 경기도의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편견과 차별 없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결혼 가정	국내출생자녀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중도입국자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외국인 가정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한국계 중국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다문화 학생 유형

- 다양한 문화의 요소를 가진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포용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가족 다양성 이해 교육을 통해 누구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긍정적인 문화교류 태도 및 인식,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학급, 중점학교, 예비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문화 학생의 어려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지원

- 경기다문화교육지원센터: <https://more.goe.go.kr/>
- 다문화교육포털: <https://www.edu4mc.or.kr>
- 다누리배움터(다누리): <https://www.danurischool.kr>

①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 배치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관할 거주지의 학교 편·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 두 분, 학생 모두 동의해야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배정이 가능합니다.

Q&A

Q : 다문화 가정의 아이나 부모의 한글 교육 지원이 궁금해요.

A : 학교 차원에서 한글 교육과 관련하여 맞춤형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교육정보 제공 및 다국어로 문자, 번역, 통역, 상담, 유튜브 자막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다문화 학생 등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습 부진을 초래하는 교과목에 대한 보충 학습 시간을 편성 운영합니다.

Q : 국외에서 거주하고 온 귀국 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이 궁금해요.

A : 귀국 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 후, 1년 미만인 귀국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에 의해 입학 및 전입·편입학·재취학 지원서를 받습니다. 운영 학교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며 한국어 교육과정을 포함한 귀국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합니다.

다문화 학생 공교육 진입 관련 자료

자료명	내용	대상	검색 방법(해시태그)
공교육 진입 안내 영상 콘텐츠	다문화 학생 공교육 진입 관련 영상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부모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유튜브 채널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입학 안내 『우리 아이 학교보내기』	학교 입학(취학, 편입학) 관련 정보 및 교육 지원 제도 안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부모	#학부모 #우리아이
초등 다문화 학생 학부모를 위한 슬기로운 학부모 수업	초등학교 취학을 앞두고 있는 다문화 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안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부모	#슬기로운 #학부모수업

※ 출처: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

차근차근, 모두를 위한 한걸음

03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해요

① 등하굣길 교통안전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는 항상 정해진 시간과 통학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오도록 지도하며, 친구 집에 갈 때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Q : 우리 아이가 등하굣길에 길을 잃을까 봐 걱정됩니다.

Q&A

A : 입학 전에 충분한 연습을 통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등교 전에 아이와 등하굣길을 다니는 연습을 해보고, 길을 잃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부모님께 전화하기, 주변 가게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기)을 약속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매년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 등하굣길에 교통 안전지킴이가 운영됩니다.
- ➔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전 학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 첫 등교 전에 아이와 함께 통학로를 걸어보며 연습할 수 있게 해주세요.
- ➔ 너무 이르거나 늦지 않게, 많은 학생이 등교하는 시간을 이용해 주세요.
- ➔ 학교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가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 ➔ 친구 집에 갈 때는 부모님께 꼭 허락을 받아야 해요.
- ➔ 비가 오는 날에는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앞이 잘 보이는 투명한 안전 우산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①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초등학교 정문 기준 300m 이내의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조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자동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타고 등교하지 않도록 합니다.

Q&A

Q : 제 차로 자녀를 교문에 데려다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A : 아니요, 자녀가 스스로 등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차를 타고 등교하면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을 초래하여 많은 학생 및 주변 차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급적 부모님 차량으로 등교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 부모님 차량으로 등교하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 ➡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학교가 끝난 후에 안전하게 타도록 해주세요.
- ➡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밝은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 어린이보호구역 내 건널목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과태료 부과: 과태료 8만원 (승용차) 부과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안전수칙

보호자

- ✓ 안전한 보행 방법 지도하기
- ✓ 자전거, 킥보드 탈 때 보호대 착용시키기
- ✓ 어린이옷, 가방은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으로
- ✓ 어린이 우산은 밝은 색이나 투명우산으로
- ✓ 어린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내용출처: 도로교통공단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안전수칙

어린이

- ✓ 무단횡단금지
- ✓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추기
- ✓ 횡단보도 건너기 전 좌, 우 앞피기
- ✓ 차가 멈추는지 확인 후 손 들고 건너기
- ✓ 길을 건널 때는 뛰지 않고 걸어가기



※내용출처: 도로교통공단

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요

① 재난안전교육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 현상이나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의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에서는 재난 대비와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발달 과정과 학교 실정에 맞춘 체험 중심 안전교육 및 재난 대피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A

Q : 학교에서 불이 났을 때 아이들이 잘 대피할 수 있을까요?

A : 네, 실제와 같은 재난 대피 훈련을 통해 학생들이 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진,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전체 교직원의 역할을 정하여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회 이상 실제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화재 및 지진 등의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와 같은 체험 중심의 재난 대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Q : 태풍으로 인해 학교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A : 학교나 담임선생님과의 연락을 통해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이나 침수로 인해 등교가 어려울 때는 학교로부터 등교 시간 조정이나 임시휴업 등에 대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학교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재난으로 인해 학생의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 학생들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화된 안전교육을 학년별로 33시간 이상 받습니다.
- ➔ 학교에서는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 재난 대응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피 훈련을 합니다.
- ➔ 학급에서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특히, 1~2학년 통합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안전 관련 수업이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 ➔ 학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시 학부모나 학생에게 안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계절과 날씨에 맞는 옷을 입혀 주세요.
- ➔ 재난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경우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에 연락해 주세요.
- ➔ 가정에서도 학생의 수준에 맞게 안전교육을 실천해 주세요.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 영상



화재 안전



지진, 해일 안전



풍수해 안전



보로로 안전교육



① 실종유괴예방교육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는 2022년 2만 6천여 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실종 및 유괴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부모는 늘 아이를 지켜보려고 하지만 늘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예방교육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Q&A

Q : 자녀에게 유괴방지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 :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유괴범은 낯선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이라도 무작정 따라가지 않고 부모님을 먼저 찾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 우리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해 주어야 할까요?

A : '멈추기-기다리기-생각하기'의 단계를 연습합니다.

자녀가 길을 잃었을 때는 먼저 그 자리에서 멈추어 부모님을 기다리고,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 교육과정 내 실종예방교육 및 유괴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3월 초 학교 적응 기간에 이를 강조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 ➔ 학교가 끝난 후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학생이 단말기를 소지하고 학교 교문을 통과하면 학부모 휴대전화로 확인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해 주는 '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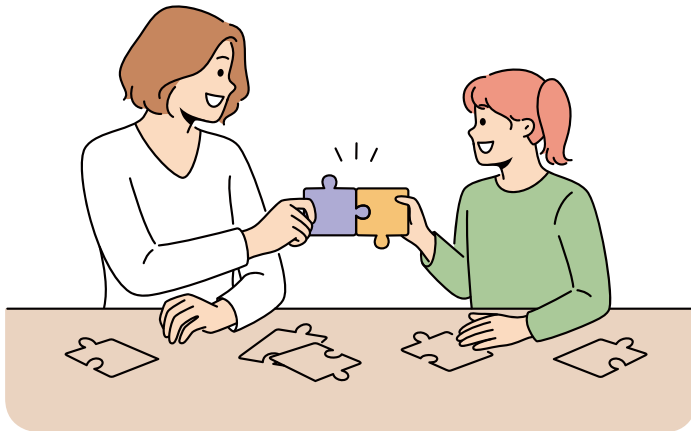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가도록 약속합니다.
- ➔ 가방에 이름,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쉽게 보이지 않도록 작게 적습니다.
- ➔ 데리러 오기로 약속되지 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둡니다.
- ➔ 많은 학생이 등교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등교합니다.
- ➔ 자녀의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둡니다.



아이 지문 등록 서비스

- ➔ 안전Dream 센터에서는 아동들의 실종 발생 시 해결을 위해 아이 지문 등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아이 지문 등록 서비스는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모바일 안전Dream 어플리케이션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학교안전제도가 궁금해요

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학교 내의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및 범죄 예방, 보안 및 학생 안전 등의 목적으로 학교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Q&A

Q : 교실 안에 CCTV가 있을까요?

A : 아니요, 교실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교실 내 CCTV는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보호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Q : 학교에 CCTV를 더 설치할 수 있을까요?

A :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학교 내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교체를 원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하는 장소의 CCTV 설치 및 교체를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주시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 CCTV의 설치 대수, 위치, 촬영 범위 등은 학교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 ➔ CCTV 녹화 영상은 별도 지정된 공간에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보관되며 책임관리자 또는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 ➔ 영상은 일반적으로 30일 동안 보관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합니다.



학교에 설치한 CCTV 영상을 보고 싶어요

- ➔ '정보공개 청구서'에 요청하는 CCTV의 설치 장소, 확인하고 싶은 시간 또는 상황, 요청하는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단, 본인 자녀 외에 다른 아이가 포함된 CCTV 열람이 필요한 경우, 다른 아이와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아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와 같은 보호조치가 취해진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는 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학교안전공제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 등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었을 때 학교안전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이 학교안전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합니다.

Q&A

Q : 학교 수업 시간에 활동하다가 다쳤어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 네, 제도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여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 : 그러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요, 학교안전공제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실에서 간단히 치료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에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공제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한 진료비의 경우
- ➔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이 진료 및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 ➔ 자동차 사고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상받은 경우
- ➔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금오동,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5층)
- ➔ 전화번호: 1588-5255
- ➔ 팩스번호: 031)840-2127
- ➔ 홈페이지: <http://www.ggssia.or.kr>

학교 안전공제회 청구 절차

학교

사고 발생 및
사고 통지

청구인(학부모)

1. 청구서 작성
www.schoolsafe.or.kr에 접속 후 청구서 작성
2. 제출할 서류 준비
 - ① 공제급여청구서
 - ②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③ 진료비 세부 내역서
 - ④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처방전)
 - ⑤ 통장사본
 -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온라인 : www.schoolsafe.or.kr에 서류 스캔본 첨부
 - 오프라인 :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

공제회

심사 및
결정

- ➔ 공제 청구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 비급여 치료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 비급여를 처방했다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 공제회에서는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에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해요

① 감염병

학교장은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Q&A

Q : 우리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학교에 가면 안 되나요?

A : 전염력이 있는 감염병에 걸렸을 때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독감이나 코로나와 같이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에 확진된 경우, 완치되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수두나 수족구병 같은 감염병은 반드시 가정 등의 장소에서 격리하고 등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는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Q : 독감에 걸렸다가 다 나은 것 같은데, 학교에 보내도 될까요?

A : 의사의 확인이 있으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에 기재된 격리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격리 기간 이전에 다 나아갔다는 의사의 진료확인서를 받았을 때 등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며,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킵니다.
- ➔ 개인용 수건, 식기류를 별도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의복 침구류는 단독 세탁합니다.
-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가 외부 위험 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기상과 취침 시간을 준수하는 등 평소 등교할 때와 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합니다.



법정 감염병, 증상 및 등교중지 기간

감염병	주요 증상	등교 중지(격리) 기간
결핵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약물 치료 후 2주까지
인플루엔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가래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수두	피부 발진, 수포, 발열, 피로감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수족구병	발열, 손·발바닥 및 입안 수포 및 궤양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유행성각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눈곱, 눈부심	격리하지 않음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이하선 부종, 발열, 두통, 근육통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성홍열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오한 및 인후염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코로나19	발열, 기침, 근육통, 인후통	확진일부턴 5일간

-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중 1가지를 학교에 제출하며, 학교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학교 안내에 따릅니다.
- 병원 영수증이나 약봉지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사가 감염병 진단 시 권고한 격리 기간 이전에 등교할 때는 감염병이 다 나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인후 점막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신체 여러 장기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폐 등 신체 기관이 아직 다 발달하지 않아 미숙하지만 신체 활동은 성인에 비해 활발하므로 미세먼지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Q&A

Q : 미세먼지가 심한데 학교를 보내지 않아도 되나요?

A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은 담임선생님과의 연락을 통해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은 학기 초에 제출한 진단서와 학부모의 연락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Q : 미세먼지가 심한 날인데 운동장 수업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A :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부 활동을 가급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미세먼지 상황을 확인하며 그에 따른 대응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운동장 수업 시간은 가급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운동장 및 외부 수업 시간을 줄이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 ➔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교실에서는 수업 시간에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 학교 내 식당 기계 및 기구를 세척하고 음식물 위생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3월에 담임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 ➔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가방에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주세요.
- ➔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하교 후에 꼭 몸을 씻을 수 있게 해주세요.

①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HACCP 시스템에 의한 엄선된 식재료만을 사용하여 안전한 먹거리로 급식을 만듭니다. 아이들의 바른 급식을 위해서는 매월 가정으로 통지되는 영양 소식지와 식단표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Q&A

Q : 학교급식을 직접 보고 싶는데 가능할까요?

A : 네, 학교급식소위원회 참여를 통해 급식 만드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급식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위원회'에 참여하시면 급식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Q : 급식에 우유나 간식도 제공되나요?

A : 아니요, 초등학교에서는 간식 시간이 없으며 우유는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급식 시간에 후식으로 케이크 등의 디저트가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우유 급식을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일정한 비용을 내고 우유를 신청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Q : 아이가 음식 알레르기가 있어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A :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알레르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년 초 알레르기 설문에 응답하여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달 제공되는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표시되어 있으니 가정에서 학생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는 음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 학교급식은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부합되는 식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 게시판' 운영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되는 식단을 안내하고 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학생 등이 학교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 자녀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학년 초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알려주세요.
- ➔ 기본적인 식사 예절을 가정에서 교육해 주세요.
- ➔ 개인 간식이나 음료 등은 될 수 있으면 가지고 오지 않아요.
- ➔ 잔반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편식 없이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

➔ 대표적인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및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① 난류 | ② 우유 | ③ 메밀 | ④ 땅콩 | ⑤ 대두 | ⑥ 밀 | ⑦ 고등어 |
| ⑧ 계 | ⑨ 새우 | ⑩ 돼지고기 | ⑪ 복숭아 | ⑫ 토마토 | ⑬ 아황산염 | ⑭ 호두 |
| ⑮ 닭고기 | ⑯ 쇠고기 | ⑰ 오징어 | ⑱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⑲ 잣 | | |





참고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부모, 학교를 만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부모 학교 참여 이해하기
경기교사온TV, 난독증의 오해와 올바른 이해
경기도교육청,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 2023 학교급식 기본방향
경기도교육청, 2023 초등돌봄교실 실무길라잡이
경기도교육청, 난독, 극복할 수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유엔아동권리협약-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연계 사례와 질문으로 이해하는 학생인권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참여 같이 가요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부모 꿈꾸는 1학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교육부,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초등1, 2학년)
대구광역시교육청, 2023 초등학교(1~3학년) 학부모 자녀교육 가이드북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체크리스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2 입학 두근두근 설렘
아이누리 누리집, 잘 시작하고 스스로 끝내는 미디어 습관 만들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알레르기의 올바른 이해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매뉴얼 제7권 초등학생 부모
여성가족부, 성인지 교육교재
전국학부모지원센터, 2022 학부모 교육모델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 학생 통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교육정상화법 홍보자료
한국여성재단, 디지털 성폭력예방교육 활용 워크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7개 시도교육청, 학교에서의 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학생인권 공동사례집
현장교원 정책 TF팀 연구보고서

2024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부모, 학부모가 되다

총괄

정승훈(경기도교육청 협력지원과장)

신성희(경기도교육청 학부모참여지원담당 사무관)

기획

김수진(경기도교육청 협력지원과 장학사)

자료개발

공정은(상탄초등학교 교사)

길지현(매홀초등학교 교사)

문정민(시흥초등학교 교사)

박선영(지행초등학교 교사)

우관현(신양초등학교 교사)

이현주(은여울초등학교 교사)

발행일 2024. 2.

발행인 경기도교육청 협력지원과



2024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부모, 학부모가 되다